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지 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술 교과와 사회 교과의
통합지도 방안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지 영

미술 교과와 사회 교과의
통합 지도 방안 연구

김 지 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지 영

인 준 서

김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의 수집과 처리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시각각 넘쳐나는 시각적 매체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지식만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기엔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맥락 적으로 상황과 사물을 인지하여 문제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통합적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1994년도 이후로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범교과 또는 교과 간 통합적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 되고 있으며, 대학논술 시험에서도 교과간의 벽을 넘어 통합교과적인 종합적 사고력을 알아보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양과목에서도 통합교과적인 주제 중심의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교육대학은 1984년에 아예 ‘통합교과’를 전공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유익할 것 같은 통합교육은 교과목이 가지는 고유의 논리성과 개념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개략적인 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우리나라도 교육과정 개정 시 각 교과 전문가들의 반대도 많았다. 하지만 분과중심의 교육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은 어렵다고 본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이 갖고 있는 내면에 있는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교과의 의의를 밝히고 그것을 근거로 미술교과와 사회과 교과의 구체적인 통합수업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에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사회교과와의 통합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적이며 종합적 사고 능력을 신장 시키는데 연

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중등 미술교과와 사회 교과의 통합지도방안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 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미술교과와 사회과 교과의 통합지도방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통합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통합교육의 사조와 통합교육의 특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을 통해 미술교과에서 타 교과간의 통합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조선시대 후기미술 중 우리나라의 풍속화에 대해 고찰해 본다. 그리고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이 나온 도판을 제시하여 정리 설명 하였다.

또한 통합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지도방안과 풍속화를 주제로 설정한 이유와 총 2차시의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미술교과와 사회과 교과의 통합 교육의 의의를 이해하고 미술교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이 통합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켜 교육적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 | |
|--|----|
| I.서론 | 1 |
| II.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 | 3 |
| 1.통합교육의 등장 배경과 개념 | 3 |
| 1)통합교육의 필요성 | 6 |
| 2)교육과정사조와 통합교육 | 9 |
| 3)통합교육의 특성 및 유형 | 25 |
| 2.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미술교과의 타교과의 통합수업 | 28 |
| 1)미술교과와 국어교과의 통합 | 30 |
| 2)미술교과와 과학교과의 통합 | 33 |
| 3)미술교과와 사회교과의 통합 | 36 |
| III.조선시대 후기 미술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에 관한 고찰 | 40 |
| 1.조선시대 후기 시대배경 | 40 |
| 1)한국사적 관점에서 | 40 |
| 2)미술사적 관점에서 | 43 |
| 2.풍속화 | 46 |
| 1)단원 김홍도 | 47 |
| 2)혜원 신윤복 | 55 |
| IV. 조선시대 풍속화를 활용한 이해, 표현, 감상 통합 지도안 개발 | 62 |
| V. 결론 및 제언 | 74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 1>김대현의 통합교육 | 8 |
| <표 2>간학문적 통합(1) | 21 |
| <표 3>간학문적 통합(2) | 21 |
| <표 4>간학문적 통합(3) | 22 |
| <표 5>인그렘의 유형 | 27 |
| <표 6>미술교과와 국어교과의 통합 | 30 |
| <표 7>미술교과와 과학교과의 통합 | 35 |
| <표 8>미술교과와 사회교과의 통합 | 37 |
| <표 9>김홍도의 풍속화 소재 분석 | 49 |
| <표10>김홍도의 풍속화 작품 분석 | 50 |
| <표11>신윤복의 풍속화 소재 분석 | 56 |
| <표12>신윤복의 풍속화 작품 분석 | 57 |
| <표13>수업지도안 | 65 |

도 판 목 차

| | |
|--------------------|----|
| <도판 1>서당도 | 50 |
| <도판 2>씨름도 | 50 |
| <도판 3>활쏘기 | 50 |
| <도판 4>자리 짜기 | 51 |
| <도판 5>신행 | 51 |
| <도판 6>무동도 | 51 |
| <도판 7>고누 놀이 | 52 |
| <도판 8>고기잡이 | 52 |
| <도판 9>점괘 보기 | 52 |
| <도판10>대장간 | 52 |
| <도판11>빨래터 | 53 |
| <도판12>담배 썰기 | 53 |
| <도판13>기와 쌓기 | 53 |
| <도판14>길쌈 | 53 |
| <도판15>벼타작 | 54 |
| <도판16>우물가 | 54 |
| <도판17>행상 | 54 |
| <도판18>단오풍정 | 54 |
| <도판19>쌍검대무 | 57 |
| <도판20>연소답청 | 57 |
| <도판21>월하밀회 | 58 |
| <도판22>월하정인 | 58 |
| <도판23>주사거배 | 58 |
| <도판24>주유청강 | 59 |
| <도판25>천금상련 | 59 |
| <도판26>연당의 여인 | 60 |
| <도판27>무녀신무 | 60 |

| | |
|-------------------|-----|
| <도판28>기방무사 | 6 1 |
| <도판29>ppt01 | 6 6 |
| <도판30>ppt02 | 6 6 |
| <도판31>ppt03 | 6 9 |
| <도판32>ppt04 | 7 0 |
| <도판33>ppt05 | 7 0 |
| <도판34>ppt06 | 7 1 |
| <도판35>ppt07 | 7 1 |
| <도판36>ppt08 | 7 2 |
| <도판37>ppt09 | 7 2 |
| <도판38>ppt10 | 7 2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시각각 넘쳐나는 시각적 매체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잘려진 지식만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기엔 많은 문제점과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맥락적으로 상황과 사물을 인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통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1994년도 이후로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범 교과 또는 교과 간 통합적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 되고 있으며 대학논술시험에서도 교과 간의 벽을 넘어 통합교과적인 종합적 사고력을 알아보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미술교과 내에서의 통합적인 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의 교양과목에서도 통합교과적인 주제 중심의 과목 설정이 적극 추천되고 있다. 교육대학은 1984년에 ‘통합교과’를 전공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유익할 것 같은 통합교육은 각각의 교과목이 가지는 고유의 논리성과 개념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개략적인 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과정 개정 시 각 교과 전문가들의 반대도 많았다. 하지만 분과중심의 교육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은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개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하면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개척자적인 사람으로 창조적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요약하자면 미술교과를 통해서 개성적이고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고 사회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 하고자 한다.1) 이것은 사회 교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내면에 있는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교과와 사회과 교과와 통합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과 수업방안은 종합적이면서 창의적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교육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사회교과와의 통합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적, 종합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통합교과의 개념 및 필요성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통합교육의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둘째, 미술교과 안에서 다른 교과 간 통합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미술교과와 사회교과와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넷째, 제시한 미술교과의 통합교과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및 평가를 고찰한다.

1) 임정도, 이성기, 김황기, <미술교육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p.35

Ⅱ. 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

1. 통합교육의 등장배경과 개념

‘통합’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20년-1950년대의 시기에 학습경험의 통합 및 교육과정의 통합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게 되면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서 처음 교과통합이 논의되었지만, 1960년대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된 시기에 교과통합이 강조됨으로 인해 그 논의가 침체되었다. 그 이후 1970년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으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의 기초가 됨에 따라 다시 통합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교과통합이라는 개념은 제4차 교육과정(1980년대)에서 처음 사용되게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대학입시로 인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비주지주의 교과와 주지 교과와의 동등한 수업과 지식, 사고력, 행동 등이 통합적으로 조직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학습자들의 과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교과수를 줄이고 다루어야 할 과목을 묶어서 가르치는 통합교과가 제안되었고 세계적인 교육과정의 변화가 통합교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전부터 간학문적 접근이나 다학문적 접근 등을 통해 통합을 실시해 왔다.²⁾ 그리고 1980년 태국 방콕 유네스코 지부의 APEID³⁾에서 공동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가하여 제 4차 교육과정에 통합교과가 공식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게 된

2) 김재형 외, <통합교과 운영론>, 서울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출판부

3) APEID: (Asia Pacific Programme of Educational Innovation for Development, 아시아 태평양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 프로그램)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통합교육은 방법이나 의미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던 것이다.

통합교육의 의미를 보자면 ‘통합교육과정’ 인지 ‘통합교과’ 인지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교육과정’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통합의 수준이 교육과정 전체에 해당 된다는 것이고, ‘교과’ 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상의 교과를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다. 통상적으로 학교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이 교과이기 때문에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교과와 교과의 통합 프로그램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이므로 통합교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지식인가, 경험인가 하는 것도 통합교과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지식을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이나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나 인간중심 교육과정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은 위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⁴⁾

다음으로 어떤 단어가 앞에 등장하는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 통합 = 교육과정통합’ 은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통합 + 교육과정 = 통합교육과정’ 은 통합이 이루어진 ‘결과’ 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과통합과 통합교과는 앞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과정과 결과로 해석하면 된다.

교육과정통합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통합이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내용의 영역에 있어서 각기 다른 학습 경험들의 상호 관련되어지고 의미 있게 모아져서 하나의 전

4) 김재복, 1993,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통합교육과정>, p.29, 재인용

체로서의 학습을 완성시키고 나아가서 인격의 성숙을 결과케 하는 과정 또는 결과이다.” 5)

통합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 전통적으로 간학문 또는 지식의 체계에 따라서 분화된 분절, 교과 중심으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교과 간의 엄격한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고 각 교과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한 대로 가져다 재구성하여 학습자의 흥미 중심, 문제 중심, 특정 재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6)

교육과정 통합은 “학습자들이 학교 지도하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내용 영역에 있어서 각각 다른 학습 경험들이 상호 관련되어지고, 의미 있게 모아져서 전체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인간의 성향 변화가 가치 있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7)

5) 이영덕,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한국교육개발원 편, 1983, p.44

6) 박병선 외, <통합교과용 도서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워크 슱>, 한국교육개발원, 1981, p.26

7) 김재복,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교육과학사, 1993, pp.23-24

1) 통합교육의 필요성

전인교육은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며, 통합교육 또한 전인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교과들의 내용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서의 경험이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 특성으로 인간은 이미 출생 때부터 통합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경험들을 결합하여 통합적 성장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⁸⁾

즉, 인간의 본래적인 특성이 그러한 학습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파악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중등교육에서는 각 교과 간 전문성에 의해 통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수업에 대한 통합된 접근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까지의 지식의 전이에 달려 있다. 교육에서 교과 통합의 필요성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의 발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은 1930년대 진보주의 교육 운동 기간 동안 폭 넓게 주장 되었고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1920년대 스위스와 독일의 발도르프학교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특징된다.

통합교육과정은 1940년대에 출현한 중핵교육과정 운동과 함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후에 1960년대 Bruner의 등장으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이 팽배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것이 점차 사라졌다가 1970년대 인간중심교육, 사회비판이론, 재개념주의 등의 영향으로 교육과정의 통합화 운동이 다시 강하게 대두되었다.⁹⁾

8) 이영덕,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3

9) 김재복, 1996, <통합교육과정의 연구 대상과 접근방법>, 김홍주, 1992, <교과통합의 필요와 구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구교대 논문집, <통합교육과정>, p.36,제인용

Ingram(1979)은 통합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 여덟 가지를 정의하고 있다.

1) 변화에 대비한 교육, 2) 학교와 사회성 증대, 3) 열린 교육, 4) 지식의 유용성 유지, 5) 실천위주의 학습, 6) 교육적 실천을 위한 관련 인사들 간의 협력 증대, 7) 개인 학습자의 중요성, 8) 교육받은 능력의 함양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0) 지식의 폭발, 수업 시간표의 분과화가 지니고 있는 비현실성, 학교 학습내용과 현실 세계의 이질성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부적절성, 분과화된 사회의 반발이라는 네 가지 이유에서 교과들을 통합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Drake는 통합교과의 필요성을 지식의 폭발적 대처, 학습내용과 실제 세계의 경험의 일치, 정보들 간의 관련성을 찾으려는 인간의 정보처리 현상 등에서 찾고 있다.

Tanner와 Tanner¹¹⁾는 최근의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다변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에서의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자 중에서 김대현은 통합 교과가 필요한 이유, 가치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¹²⁾

10) 배진수, 이영만, <교육과정 통합과 평생교육>1995, pp.23-40

11) Tanner. D., & Tanner, L. N.(1980), Curriculum Development

12) 김대현, <학교에서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1993, pp.92-94

<표01> 김대현의 통합교육

이영만은 위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교육과정통합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¹³⁾

| 영역 | 필요성(가치) |
|------|--|
| 교육목표 | 1) 개인이 부딪히는 일상생활의 문제나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2) 협동심과 민주주의 생활태도를 길러준다. 3) 인지, 정의, 신체의 균형적 개발을 의미하는 전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4)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감이 증대한다. |
| 교육내용 | 1) 교과 간의 내용 중복을 피하여 학습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준다. 2) 교육내용의 양적 증가에 대처 할 수 있다. 3)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
| 교육방법 | 1)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로서 참여한다. 2) 학습의 과정이 공포나 두려움 없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3) 학습경험의 전이 효과가 크다. |

첫째, 교육과정 통합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지식의 폭발’에 대비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학교교육은 논리와 이론을 중시하는 전통에 치우쳐 사회라는 학습 환경, 혹은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인간의 두뇌는 원래 개별적으로 주어진 정보라도 이들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로 결합된 정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¹⁴⁾

넷째, 교육과정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서이다.

현대 교육 이론 중에서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구성주의이론¹⁵⁾,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과 학습방식을 말하고 있는 가드너의 다

13) 이영만(1994), <교육과정 통합에 비추어 본 사고 교육의 접근방식>, 부산 교육학 연구, pp.67-68

14) Caine & Caine, 1991, Making Connections: Teaching and the Human Brain

15) 구성주의 이론: 구성주의는 지식은 학습자 자신이 관찰, 회고, 논리적 사고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중지능이론¹⁶⁾, 경쟁지향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참다운 인간성을 추구하며 이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홀리스틱¹⁷⁾ 교육, 인간주의를 강조하는 발도르프 학교 등을 들 수 있다.

2) 교육과정 사조와 통합교육

기존의 교육과정 이론들에서도 교육과정의 통합이나 통합교과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 타일러의 ‘통합성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통합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교육내용의 조직과정에서 선정된 내용을 조직하는 내용들 간의 연결의 기본이 되는 조직요소(organizing elements)와 조직중심(organizing center)을 축으로 하여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통합의 모습이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조직요소를 교과 또는 학문의 논리성이나 탐구양식에 따른 개념, 기능, 가치 등을 중요시 하면 교과중심이나 학문중심의 통합이 된다. 반면 조직요소들을 아동들의 흥미와 생활경험 또는 사회문제에서 찾으면 경험중심의 통합이 된다.

이 장에서는 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통합에 관한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교과중심 교육과정 통합

고대 그리스 시대의 7자유과 이래로 각 교과의 중요성이 시대와 가치의 변화로 조금 다르게 변화하고 첨가되어 왔지만 교육내용으로서 교과가 지니는

16) 다중지능이론: 지능이 높은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는 종래의 획일주의적인 지능관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 서로 독립적이며 상이한 여러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가드너(H.Gardner)의 지능 이론이다. 가드너는 지능을 ①언어(linguistic), ②논리 수학(logical-mathematical), ③공간(spatial), ④신체 운동(bodily-kinesthetic), ⑤음악(musical), ⑥대인관계(interpersonal), ⑦자기 이해(intrapersonal), ⑧자연 탐구(natural) 지능 등으로 분류 하였다.

17) 홀리스틱교육: 학습자의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측면이나 감정적, 논리적, 정신적인 측면 등 전체적인 존재에 관계를 갖고자 하는 교육으로서, 슈타이너교육이나 전인교육, 합류(合流)교육, 인간성교육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¹⁸⁾ 이것은 7자유과에서 출발한 전통적인 교과가 형식의 도야나 능력의 연마에 도움이 되고 형식의 도야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형식도야 이론으로 알려진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또는 형식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교과가 구성 되어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통합 한다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여러 가지 능력, 형식들을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 간의 성격이 확고한 교과들 간의 통합은 학습자들이 여러 교과를 통해 다양한 능력을 잘 단련시켜 그 능력들이 아동의 내면에서 통합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방법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통합이란 서로 구분한 교과들을 실제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단기 보다 각각의 교과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들이 적절하게 단련되었을 때 학습자 내면에서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교과통합은 중요하지 않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 분과 위주의 교육이 실패한 것은 각각의 교과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체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입장에서도 교과 간의 실제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크게 ㄱ) 상관형 교육과정, ㄴ) 광역형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관형 교육과정이란 교과내용을 파괴하지 않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과나 과목들을 서로 관련지어 내용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초등학교와 같이 학급 담임이 전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중등학교의 경우 중복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인위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18) Brubacher, 1964<교육사, 교육문제사>, 이원호 역, 1984, <통합교육과정>, p.52, 재인용

광역형 교육과정은 상관형 교육과정보다 더욱 더 엄격한 교과목 간의 구분을 해소하고 보다 넓은 영역에서 개념이나 원리들을 조직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광역형은 영국의 토머스 헉슬리(Tomas Huxley)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활용되기 시작 하였다.¹⁹⁾

광역형은 주제법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세부적인 과목을 분석해서 세부적인 과목 체계에 따르지 않고 이들을 포괄 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이나 개념 원리들을 관련시켜 조직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회과의 경우 주제법 방식에 의하면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류학 등 세분화 하지 않고 포괄하여 ‘사회’ 라는 하나의 교과로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이 광역형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들이다.

광역형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들자면, 장점으로는 첫째, 교과목의 통합을 촉진 시켰다는 점, 둘째 지식의 기능적 조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셋째 사실보다는 기본원리에 보다 충실한 교육과정의 조직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개략적인 내용만 다룬다는 점, 둘째 교과목이 가지는 고유의 논리성과 개념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여러 교과목의 통합에 있어 각 과목의 독특한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광역형 교육과정조직이 일반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2)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통합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교육사조이

19) 김식중, 1982, <현대 교육과정>, 학문사:<통합교육과정>, p.57, 재인용

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중요성이 사회적인 유용성과 관련시켜 교과
의 의미를 개인 및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내용의 가치가 사회와 개인의 필요나 아동의 흥미에 의해서 정당
해 지며, 문제 사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가에 의해 선정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교육과정의 대안으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타난 배경을 중심으
로 교육내용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Thorndike 등이 수행한 전이 실험과 파지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전이 실험의 연구 결과 전통적 교육과정을 뒷받침 하고 있던 능력심리학이
무너졌으며, 파지 현상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학습자가 이전에 공부한 것
들을 숙지하려면 계속적인 반복이 있어야 한다. 계속적인 피드백이 없다면
쉽게 학습자의 기억은 망각된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 교육과정이 비판받게 된 다른 요인으로 Dewey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듀이는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를 교과가 현재 사회 구조에 맞는 수업을 해
야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과를 엄선해야 한다고 본다.

듀이가 말하고자 한 것은 교과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며 학습자에게 전달 될 때에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듀이는 학교 교육이 생활의 경험과는 상관없는 ‘학교의 교과’ 로 그칠 위
험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습의 내용을 언어적 기호를 통한 전달과 문자 습득
에만 그치지 않고 경험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와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현대교육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은 학습자들이 문제 발생 시 경험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문제사태의 경험이 교과별로 분리 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 통합되어야 한다.

윤필중은 교육내용의 선정으로 학습자의 동기와 생활을 연결하는 연관성, 지적, 정의적, 신체적 사고와 느낌이 하나로 통합되어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김홍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험을 서로 관련지어 조직하는 것은 교육내용들 간의 단절성을 막고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부응할 수 있어야 흥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필요가 교과내용의 선정의 기준이 될 때 유용한 효과를 주고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²¹⁾

통합성에 대한 위의 해석들은 ²²⁾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이론으로서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타일러에 따르면 학습경험의 조직이란 교육내용을 정한 다음의 단계로 교육내용의 조직요소, 조직원칙, 조직구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미 선정된 내용들을 실제로 조직하는 과정들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내용 조직의 타당성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에 의해 판단된다. 교육내용의 조직과 관련되는 문제는 학습 경험들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되는 종적인 조직문제와 학습경험들의 다양화를 나타내는 횡적인 조직문제이다. 타일러는 횡적인 조직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이 횡적으로 조직되면 학습자는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통합의 유형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

20) 윤필중,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9

21) 김홍주, 교과 통합의 필요와 구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92

22) 타일러,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49

다.

(1) 활동형 교육과정, (2) 중핵 교육과정, (3) 현성형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3)

(1) 활동형 교육과정

활동형 교육과정이란 학습자들의 흥미와 문제가 학습경험 선정 조직에서 기본을 이루어 활동을 조직하는 교육과정이다.

활동형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 학습은 학습자에게 목적이 있고 흥미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성장은 전인적이며, 학습은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다.

넷째, 학습들은 비슷한 능력, 정서, 사회적 경향 등의 개인차가 고려된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된 교육과정의 예로 킬패트릭의 ‘구안법’과 듀이의 ‘실험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들 수 있다.

Kilpatrick의 구안법은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목적과 활동을 세우고 실천, 평가 하는 것이고 듀이의 실험학교에서는 인간에게는 네 개의 충동(사회적 충동, 구성적 충동, 탐구 실험적 충동, 표현적(예능적)충동)이 있고,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은 네 가지 충동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듀이에게 있어서 교육활동은 일종의 작업이며, 지식과 기능은 이러한 작업에 의해서 숙지 될 수 있다고 했다. 요리, 재봉, 목공, 계획하기, 설계하기, 실험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3R) 등을 작업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

이 교육과정의 장점을 알아보면, 일단 학습자의 흥미, 필요, 문제에 적합하다는 점, 학습자 개개인의 생활경험을 직접 반영 한다는 점, 활동 속에서 여

23) 이영만, <통합교육과정>, 2001, p.63

러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 교육내용을 활동과 관련시켜 통합한다는 점 공동의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점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사회의 방향감과 책임을 등한시 했다는 점 교과외의 기본 내용을 적절히 이수하지 못했다는 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 현대의 다인수 학급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 내용의 발전성이나 계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중핵 교육과정

중핵 교육과정은 중핵과정과 주변과정이 동심원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중핵과정은 생활이나 욕구, 경험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고, 사회영역이나 자연영역이 생활 경험 중심으로 조직된다.

주변과정은 중핵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계통학습을 하되 몇몇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직되고 교과별로 조직되며 그리고 너무 교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너무 흥미나 필요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3) 현성형 교육과정

현성형 교육과정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교사와 학습자들이 학습현장에서 함께 학습주제를 정하고 교육내용을 계획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다.

사전에 미리 제시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자유의 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진보주의의 교육현장인 미국에서조차 시도 되지 않은 교육과정이다. 아주 유능한 교사만이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깊이 있는 내용은 배우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흥미위주의 문제만 다루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심리적인 측면과 환경의 측면에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핵교육과정의 구성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스미스, 스탠리 등이 분류한 기준에 따라 가) 교과중심, 나) 개인중심, 다) 사회중심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다.²⁴⁾

가) 교과중심 중핵 교육과정

교과중심 중핵 교육과정은 중핵의 요소를 교과에서 찾으면서 교과 간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광역과목, 통합과목, 문화사 중심의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광역과목은 학문적으로 가까운 과목들 간의 경계를 없애고 통합하려고 하지만 통합과목은 학문적으로 먼 교과끼리 통합하여 학습의 효과를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와 역사, 국어와 과학을 통합하거나 역사를 중핵에 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예술 등의 교과를 연결시키는 것이다.²⁵⁾

나) 개인중심 중핵 교육과정

개인중심 중핵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필요와 흥미에 두는 교육과정이다. 앞서 제시한 활동형 교육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 교육과정은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체로 개인 중심의 중핵 교육과정은 활동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중등학교와 대학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개인중심 중핵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립, 인간 행동의 이해, 사회에서의 자아개발 등은 상위 수준의 학습에서 적합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24) Smith, Stanley, 1956, Fundamentals of Curriculum development

25) 광병선 외, 이론과 실제, 1983, <통합교육과정의 이론>, pp.83-95

다) 사회중심 중핵 교육과정

사회중심 중핵 교육과정은 가장 발전된 형태의 교육과정이다.

여기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ㄱ) 사회기능 중심형, ㄴ) 사회문제 중심형이다.

ㄱ) 사회기능 중심형은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 분석하여 중핵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삼는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중핵의 요소로 삼는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 여가활동, 자원의 개발과 보존 등과 같다.

ㄴ) 사회문제 중심형은 사회 활동이나 사회 변동으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들을 분류하여 중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의 교육과정은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 선전, 전쟁, 범죄와 같은 것들이다.

중핵 교육과정의 장점을 보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학습경험의 사용을 촉진 한다는 점과 교육내용을 통합하고 개인의 통합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점,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협동적인 태도를 기른다는 점 등이다. 단점은 교사들의 적절한 준비가 어렵다는 점, 일반인들의 이해부족, 지식분야의 전문화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3)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통합

1960년대 등장한 학문으로 위의 두 학문 사조와는 달리 교육 내용 속의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기본개념들이 탐구 방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학문이 중심이 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학자인 Bruner(1961)²⁶⁾는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기본 개념을 ‘지식의 구조’ 라는 새로운 말로 표현하고 있다. 부르너는 ‘지식의 구조’ 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구조를 학습하는 것은 사물의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학습하는 것으로 최소의 필수 지식을 배워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학습 할수록 새로운 문제에 적용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식의 구조를 배웠다는 점은 결국 지식의 구조 속에 함의 되어 있는 지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²⁷⁾ 지식구조의 발견은 기존의 지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던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탐구 과정이 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화에 관련하여 교과를 어떻게 연결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다.²⁸⁾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교과를 서로 관련지어 지도하는 것은 교육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Gibbons(1979)는 통합한다는 것은 부분의 합 이상이 되도록 부분들을 단일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의 통합은 기존의 학문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합된 언어로서 가능한 것은 아니나 결합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감추어져 있는 원리를 더욱 활

26) Bruner,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1961

27) 박천환, 1987, 교육과정 이론 쟁점, pp.523-530

28) Hirst, 1974:Taba, 1962, 지식과 교육과정 런던

성적으로 드러냄으로서 지식의 통합이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Pring(1978)이 지식이 통합 되었을 때 통합된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은 학문 내에서 기존의 인지 상태를 상실하게 된다. 통합된 지식은 기존의 지식에 비해 보다 평형화 되어 있으며 다른 지식에 비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에 따른 지식의 성격은 전체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어떤 사상이 부분적이지 않고 결속체로 되어 있음을 뜻한다. 어떤 사상이 구조적 전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요소가 동질성을 갖고 내적 상호관련성을 지녀야 하며 요소와 전체와의 효과적인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학문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인지능력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나타나는 유형으로 (1)나선형 교육과정, (2)간학문적 교육과정, (3)다학문적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나선형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이란 기본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조직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향상하면서 양적으로 취급 범위가 넓어지는, 입체적인 나선형 조직을 이루어가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과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개념과 원리가 단순한 반복이나 순서에 따라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지만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폭과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발달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각각 알맞은 수준에서 교과를 가르치되 교과가 가지고 있는 지적내용의 성격이 변형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동의 발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그 내용이 폭 넓고 깊이 있게 되풀이 되면서 가르쳐져야 한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달팽이 껍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달팽이 껍질의 선을 교과로 본다면 점점 넓게 돌아 나오는 것이 교과와 폭과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선정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는데 첫째, 교과에서 특정분야에 관계없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 즉, 내용선정의 문제이고, 둘째는 각 학년 수준에서 어떻게 학습자수준에 알맞게 제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조직의 문제이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장점은 학습내용조직의 계열성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선장단계와 학습내용을 관계 지으며, 유의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깊이 있는 조사와 탐구를 유도하고, 학문의 구조와 방법의 이해에 크게 기여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분과형 위주라 통합교육과는 거리가 있고 교육내용을 너무 교과와 내용만 치중하여 구획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2) 간학문형 교육과정

간학문형 교육과정은 두 개 이상의 학문을 결합하거나 상호 관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치사회학, 사회생태학, 정치경제학, 생리화학, 천체물리학 등이 있다. 간학문적 통합은 두 개 이상의 학문이 같은 방식에서나 같은 수준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종합이 이루어지도록 합쳐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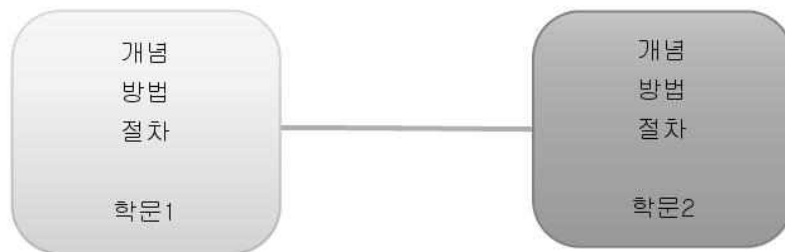
이러한 간학문적 통합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첫째, 같은 개념, 방법, 절차를 둘 이상의 학문에 적용하는 것이다.



<표02> 간학문적 통합(1)

둘째는 한 학문으로부터 온 개념 또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른 학문의 문제를 해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표03>간학문적 통합(2)

셋째는 한 학문을 축으로 하고 주위에 다른 학문을 배치하여 축에 있는 학문과 다른 학문들이 상호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표04>간학문적 통합(3)

(3) 다학문형 교육과정

다학문적 통합은 인구, 공해, 범죄, 환경 등과 같이 사회나 자연의 현상 그리고 인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 주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에 여러 학문들이 동원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문제를 한 측면에서가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다학문적 통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같은 문제 또는 주제가 축을 이루고 둘 이상의 학문은 개념, 방법, 절차에는 적용되지만 교육내용의 선정이나 교수 학습은 따로 이뤄지는 것이다.

둘째는 같은 문제나 주제에 여러 개의 학문의 개념, 방법, 절차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인간 중심 교육과정과 통합

인간 중심주의 교육과정은 지나친 주지주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서 나타나는 비인간적인 상황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인간중심의 교육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상실되어가는 인간의 정체성 회복과 학습자의 잠재 가능성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실현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 사조이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1) 정의형 교육과정, (2) 개방형 교육과정, (3) 관련형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1) 정의형 교육과정

정의형 교육과정은 지식위주의 교육과정이 정의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등한시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것이다. 지적인 능력의 발달과 함께 정의의 발달도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형은 학습자의 기본적인 관심을 중요시 한다. 학습의 내용과 교수방법이 정의적인 기초 위에 설 때만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정의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정의적 속성 자체가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적절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을 다룰 때 정의적인 속성을 어떻게 조직하고 분류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적인 영역들을 정의적인 것들과 통합시킬 것인지가 불명확 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 개방형 교육과정

개방형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에게 각각 최선의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교육과정이다. 선택이 보장된 자유로운 분위기라야 인간의 잠재능력과 개성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 개방형 교육과정은 영국의 유아학교에서 출발하여 초등학교로 확산 되었고, 미국 및 그 밖의 나라로 파급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열린 교육으로 초등학교에 퍼져 있다. 교육과정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에 기초를 두었으며 교과와 구분 보다는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분과적인 학습도 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황을 마련하고 개별적인 협의와 지도에 임한다.²⁹⁾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개인 중심이며 학습내용선정과 활동에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관련형 교육과정

관련형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생활을 관련짓는데 초점을 두고 구성되는 교육과정이다. 학구적인 교육과정이 사회적, 개인적 상황과 관련성이 부족하여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교육과정이다.

Fantini 와 Weinstein에 의하면 교육내용이 학습자와 관련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학습내용이 단순히 지식 중심일 때, 내용 중심이 종적 횡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때, 모든 학습자들에게 획일적으로 학습내용이 적용 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형 교육과정의 내용은 학습자 개인의 문제는 물론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 더 나아가 세계문제와 관련시켜 선정 조직하게 된다. 이때 교과 내용들은 구분 없이 통합적일 수도 있고 각 교과별로 제시 될 수도 있다. 관련형 교육과정의 장점은 학습내용이 개인과 사회의 의미를 준다는 점에 있으나 내용의 선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개인중심 중핵형 교육과정과 사회중심 중핵 교육과정과 뚜렷한 구분이 없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관심과 욕구 생활의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³⁰⁾

29) Saylor & Alexander, Planing Curriculum for Schools, 1974

30) 이영만, <통합교육과정>, 2001, p.86

3) 통합교육의 특성 및 유형

Ingram(1979)에 의하면 교과통합에 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Burnstein은 사회의 권력이 학교에 반영될 것이라고 사회적 현상에서 보고 있고, Morris는 통합을 지식 팽창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인 장치로 보고 있다. 그리고 Bloom은 통합교과에 의한 학습을 문제중심이나 아동중심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을 분과식 수업을 보완하는 학습경험이라고 하거나 통합이 일부 교과에서만 가능하고 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반면 모든 교과에 통합교과가 필수적이라는 학자들도 보인다.

1) Ingram(인그램, 1970)의 유형

인그램은 교과통합의 접근적 방법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1)구조적 접근과 (2)기능적 접근으로 보고 있다.

(1) 구조적 접근

인그램의 구조적 접근은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이 통합적 학습경험의 핵심으로 지식구조의 재구조화가 통합의 주된 대상이 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서 설명하자면 양적 접근은 교과나 학문의 조직요소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형식이다. 질적 접근은 교과나 학문요소들이 응집력이 있고 통일된 형태로 제시된다. 양적접근은 약한 통합, 질적 접근은 강한 통합으로 구분된다. 표를 보면 합산적 통합 → 기여적 통합 → 융합적 통합 → 종합적 통합으로 갈수록 강한 의미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각 통합의 의미를 살펴보면, 합산적 통합은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둘 이상의 영역을 분리 하지 않고 더 포괄적인 단위를 만들기 위해 상호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여적 통합은 상관적 통합이라고도 한다. 두 개의 교과가

독립성을 가지지만 앞에 제시한 합산적 통합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

융합적 통합은 단순히 둘 이상의 교과를 재조직하거나 한 교과의 내용을 다른 교과가 보완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들 간의 중복되는 공통점을 찾아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종합적 통합은 개별 교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여러 교과들 간의 공통적인 개념의 확인, 공유 되고 있는 의미의 탐색, 서로 다른 앎의 방식들의 비교, 현실에 대한 여러 접근 방식 등이 포함된다.

(2) 기능적 접근

기능적 접근은 학습자의 통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자의 통합학습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식의 습득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지식은 학습자의 통합적 학습경험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기능적 접근은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으로 나뉜다.

내재적 접근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통합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잉그램은 하위영역으로 1)필요와 흥미에 의한 통합, 2)활동에 의한 통합, 3)탐구에 의한 통합, 4)경험에 의한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는 강조점과 초점의 차이일 뿐이다.

외재적 접근에서는 교과를 통합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학습과정보다 더 광범위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통합의 사회적인 출발을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요구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할 것을 강조한다.

귀납적 접근에서는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학문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전쟁과 평화, 인종과 기아를 들 수 있다.

연역적 접근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종교적 이념의 초월 등에 의해 구성되는 교육과정이 있다.

| | | | |
|----------|--------|---------------|---------------|
| 교과 통합 | 구조적 접근 | 양적 접근 | 합산적 통합 |
| | | | 기여적 통합 |
| | | 질적 접근 | 융합적 통합 |
| | | | 중합적 통합 |
| | 기능적 접근 | 내재적 접근 | 활동에 의한 통합 |
| | | | 탐구에 의한 통합 |
| | | | 경험에 의한 통합 |
| | | | 필요와 흥미에 의한 통합 |
| 외재적 접근 | 외재적 접근 | 귀납적 (문제중심) 통합 | |
| | | 연역적 (목적론적) 통합 | |

<표05> 잉그램의 유형

앞의 교과통합에 관한이야기를 나열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교과 통합 중에서 구조적인 접근과 기능적인 접근이 약간은 혼합되어있는 것 같다. 구조적 접근 속의 질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의 탐구에 의한 통합, 그리고 외재적 접근의 문제중심 통합이 본 논문의 주요한 부분이다.

2.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미술교과와 타교과의 통합수업

미술 교과 교육은 미적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표현력, 상상력,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내며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술 교과의 교육은 주위의 시각적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꿰뚫어봄으로서 그 본질과 미적특성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심미적인 태도를 길러준다. 또한 학습자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 독창적인 생각과 개성적인 표현력 등을 바탕으로 시각문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미술적 능력과 태도는 학습자의 감성적, 지성적, 정서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미술을 통하여 체험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활동이 상호 연계된 유기적인 학습경험을 통하여 개성적, 창의적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시각문화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심미적인 태도를 길러 미술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춘일은 미술교육에서의 통합을 1)타교과와 타교과의 통합, 2)생활과의 통합, 3)미술교육 안에서의 내적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³¹⁾

첫째, 타교과와 타교과의 통합은 교과 간의 통합을 말한다.

즉 타교과와의 관련이 깊은 경험지식 탐구방식들에 개방적·통합적으로 접근하

31) 김춘일, <미술교육론>, 서울, 홍성사, 1982, p.19

자는 것이다. 교과와 경계선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자 내부에서 학습 경험들이 의미 있게 관련·통합되도록 구성 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이다. 독일의 슈타이너에 의해 개발된 발도르프교수법은 드로잉과 페인팅, 찰흙작업과 야외작업 등을 감정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교과목에 통합 시켰다. 이 방법은 현행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합 교과서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타 교과와의 통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시간표가 운영되어야 하며 협동 교수제 및 공간의 활용 자료의 운용이 적절해야 한다.

둘째, 생활과의 통합이다.

즉 미가 존재하는 생활 전반을 교육의 장으로 넓히는 일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안치된 미술 속에서만 안주하려는 미술교육은 미적 교육으로써 본연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생동감이 부족하다 예술은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일상생활 경험과의 통로를 넓혀야 하고 생활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합류되도록 내용 설정 및 방법, 전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미술교육 안에서의 내적 통합 즉, 영역간의 통합이다.

내적통합이란 어떤 주제에 의해서 지각하고 이해하고 표현해야 할 것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수업 활동이 각기 한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미적지각, 미적표현, 미적질서 및 원리의 이해라는 일관된 기본 목표에 의해 통합된 유기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수업 활동들이 모두 그 주제에 해당되는 미적 지각의 면에서 미적표현의 면에서 미적원리의 이해라는 면에서 통합되는 것이다.

1) 미술교과와 국어교과의 통합

7차 개정 교육과정의 2010년 새롭게 통합된 9종의 미술교과서에서 국어교과와 통합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부분적으로 통합된 영역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출판사 | 단원명 | 학습내용 | 학습목표 | 페이지 |
|---------------|--------------------------------|--|---|----------------------|
| (주) 중앙진흥교육연구소 | 생각과 느낌을 글로 나타내기 미술의 또 다른 표현 | 미술품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기도 한다. 미술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 속 등장인물이 되어 작품을 살펴 볼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을 정하고 작품속의 인물이 되어 당시의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입장을 글로 정리하여 나타내보자. | 하나의 작품을 정하고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 당시의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입장을 글로 정리하여 나타내보자. | 182 - 183 p |
| 교학연구사 | 어떻게 볼까? |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작품을 재해석하여 감상 할 수 있다. 작품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감상할 때에는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 작품의 색채와 형태에서 연상되는 이야기나 경험, 마음의 느낌 등을 따라가며,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 | 35p |
| 일진사 | 미술과 문학의 만남 | 미술과 문학은 그 어떤 분야보다 친근한 자매예술이다. 동양에서는 시, 서, 화를 함께 나타낸 '문인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동 서양을 통틀어 풍속화나 인물화에서는 생활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 이야기로 만들기 좋다. | 그림을 감상하고 인상적인 장면이나 표정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 예시작:<과적도>,<궁정의 시녀들> | 104 - 105 p |
| 지학사 |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 |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의 내용을 가지고 미술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자. |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의 내용을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하여 보자. | 137 p |

| | | | | |
|--------------------|------------------------|--|--|----------------------|
| | | | | |
| (주) 교학사 | 미술과 문학의 만남 | 미술과 문학은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하지만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왔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 또는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읽고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하여 왔다. | 시와 소설, 신화 등을 읽고 느낀 감동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96 - 97p |
| (주) 지학사 | 느낌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 어떤 낱말에서 떠오르는 느낌을 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다 보면 재미있고 개성 있는 형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형과 색으로 표현한 다음의 그림을 감상하고 자신의 느낌을 써보자. | 다음 낱말에서 떠오르는 느낌을 색연필이나 싸인펜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해 보자 | 38 - 39p |
| 두산동아 | 보고 느끼는 즐거움 | 나의 작품 설명서를 만들어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 협동하여 작품을 만든 후 감상을 할 수 있다. | 180 p |
| 미진사 | 보이는 대로 읽기 | 작품을 감상 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려면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그림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 작품을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서술해 본다. | 186 - 187 p |
| (주) 미래엔컬 쳐그룹 | 미술 감상 활동 |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예) 인왕제색도vs파리의 골목 |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 174 - 175 p |

<표06> 미술교과와 국어교과의 통합

미술교과와 국어교과의 관계를 다음<표06>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작품을 제시하여 언어적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시, 문학 작품들을 제시하고 그림이나 조형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많았다.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미술교과서에서 통합적인 것은 ‘하나의 작품을 정하고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 당시의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입장을 글로 정리하여 나타내보자’ 라는 주제로 학습자들이 작품 속에 들어가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미술교과와 과학교과의 통합

9종의 미술교과서에서 과학교과와 통합적인 부분인 있는 부분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출판사 | 단원명 | 학습내용 | 학습목표 | 페이지 |
|----------------------|-------------|--|--|----------------|
| (주)중앙 교육진흥 연구소 | 인체의 비례 |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인물의 전체적인 특징이나 비례, 균형, 동세, 양감 등을 잘 살려야한다. | 우리나라의 미인도와서양의 비너스에서 드러나는 비례를 보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 51p |
| | 빛과 풍경 | 사물은 빛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관찰자의 주관적인 색이나 형태를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작가들은 아침, 낮, 저녁, 밤 등의 빛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포착하여 표현 하고자 하였다. | 모네의 루앙대성당 작품을 통해 색채를 탐구해보자. | 66p |
| |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 우리의 눈은 때때로 사물을 사실과는 다르게 보는 착시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런 현상은 대상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본 성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예)옵아트 | 시각적 착시 현상을 활용한 미술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72 - 74p |
| 교학 연구소 | 시선이 머무는 풍경 | 화가들은 풍경 자체를 그림의 소재로 선택하여 감성적으로 접근하거나 순간적인 빛의 변화에 의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시선을 끄는 풍경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의 구도와 계절적 색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풍경을 그려보자. | 54 - 55p |

| | | | | |
|---------|----------------|---|--|----------------------|
| | 물질을 만나다 |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물질이 지니고 있는 성질을 탐구하고 어떤 새로운 미술품으로 탄생하는지 살펴보자. | 재료의 특성과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의미를 이해한다. | 72 - 75p |
| | 재료로 살펴본 미술의 역사 | 원시의 재료, (숫, 광물, 식물안료) 콘크리트로 완성된 로마건축물, 조개껍데기, 타일, 색유리장식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벽화 유화물감 발명이 가져온 회화사의 혁명 철강재의 개발이 가져온 건축과 조소의 변화 기성품으로 표현된 미술 작품 가공 기술이 가져온 공업재료의 변신 | 미술사에서 작품을 변화시킨 재료를 살펴보고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를 알아본다. | 104 - 107 p |
| 지학사 | 전자 시대의 미술 | 현대에 들어서 과학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자 미술가들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미술은 미술가에 의해 완성되고 제작이 되었다면 최근의 작품들은 관객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 관람자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 있다. | 과학의 발달에 따른 미술의 변화와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 76 - 77 p |
| | 착시를 활용한 미술 | 우리의 눈은 점, 선, 형태, 색등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크거나 거리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 착시를 활용한 표현 방법과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 60 - 61p |
| (주) 지학사 | 과학적 탐구와 미술 | 미술은 언제나 과학과 함께 발전해 왔다. 과학이 객관적 탐구의 방법을 앞세우는 반면 미술은 감성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진리를 찾아간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빛의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각각의 유파에 대해 조사해보고 빛의 원리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조사해보자 | 206 - 208 p |

| | | | | |
|--------------------|------------------|---|--|----------------------|
| 두산동아 | 색채의 아름다움 | 색은 빛에 의해 지각되는 것으로, 우리는 빛이 물체 표면에서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색을 볼 수 있다. | 빛과 색의 관계와 색채가 가진 기능을 알아본다. | 30 - 31 p |
| 일진사 | 멀티미디어와 영상예술 | 미술과 과학의 만남-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변해온 미술의 흐름을 이해한다.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표현을 이해한다. 컴퓨터를 활용할 디지털 미술을 찾아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160 - 167 p |
| 미진사 | 물질의 색, 빛의 색 | 사과가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후에 흑백으로 바꾸어 보고 색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보자. | 빛과 색의 관계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의 원리를 이해한다. | 98 - 99p |
| | 키네틱 아트 비디오 아트 | 키네틱 아트는 기존의 정적인 작품과는 달리 동력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작품을 말한다.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 비디오를 매체로 사용하고 음향 영상화면 등을 사용하여 미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장난감을 제작해 보자. 테크놀로지가 미술의 확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 178 - 181 p |
| (주) 교학사 | 다양한 원근의 표현 | 투시원근법, 공기원근법, 물체의 겹침과 크기 변화에 의한 원근법, 산점투시 | 원근감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고, 풍경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표현한다. | 54p - 57p |
| | 미술과 과학의 만남 |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 유화의 발명, 키네틱 아트, 빛과 영상 | 새로운 영상 매체를 활용한 미술의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빛이나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자 | 128 - 133 p |
| (주) 미래엔컬 쳐그룹 | 꿈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그림 | 애니메이션은 움직이지 않는 사물들이나 그림을 여러 장을 그려 움직임을 연속 촬영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135 - 139 p |

<표07> 미술교과와 과학교과의 통합교육

3) 미술교과와 사회교과의 통합

9종의 미술교과서에서 사회교과와 통합적인 부분인 있는 부분을 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 출판사 | 단원명 | 학습내용 | 학습목표 | 페이지 |
|---------------|--------------------------|--|--|------------------|
|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사회를 반영하는 미술 | 작가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민감하게 의식하며 그 시대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 게르니카, 쇼핑하는 젊은 여인 |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미술의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글로 써 보자. | 95p |
| 교학연구사 | 우리가족이야기 학교생활 우리 동네 | 우리주변의 삶을 관찰하여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 우리가족의 정겨운 모습을 관찰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정겹게 표현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한다. | 18 - 23p |
| | 어떻게 볼까?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작품을 보면 우리는 당시의 제도를 알 수 있고 작가의 주제 의식을 조형적 관점과 관련하여 감상할 수 있다. | 작품의 주제 및 표현 특징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감상 할 수 있다. | 33p |
| | 미술에 담은 세상 | 풍속화는 당시의 도덕, 관습,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상황이 담겨 있다. 작품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상징을 찾아보자. | 생활과 관련된 미술의 기능을 이해하고 일상의 모습을 표현한다. | 152p |
| | 다른 문화, 다양한 축제 | 여러 나라의 축제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교 축제를 개성 있게 만들고 참여한다. | 지역별 탈을 만들어 축제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해보자 | 162 - 163p |

| | | | | |
|--------|---------------------------|--|--|------------------|
| | 소망을 담은 그림, 민화 | 생활 속에 나타난 민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변형하여 다양하게 표현한다. | 민화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을 조사해 보고 그림원을 담아 민화를 그려보자. | 186 - 187p |
| 지학사 | 삶을 그린미술 -다양한 일상의 표현 |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하지만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상황이나 일이 있다. 즐겁고, 슬프고, 놀라웠던 일이나 안타까웠던 일을 표현해보자. | 일상을 표현한 미술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90 - 93p |
| | 삶을 그린 미술 -역사를 이야기하는 미술 | 역사화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 역사화의 의미를 알고 미술을 통하여 시대를 이해한다. | 94 - 95p |
| | 다양한 목소리의 표현 | 미술은 인간이사회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 졌다. | 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미술을 찾아보고 표현한다. | 110 - 113p |
| (주)지학사 | 미술과 우리문화 | 문화는 보다 나은 삶을 가꾸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며, 그중에 예술은 문화의 꽃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한다. | 188 - 189p |
| | 우리 고장 미술의 향기 | 여사에 남은 훌륭한 예술 작품과 문화는 몇몇 사람의 능력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 우리 고장에 있는 미술관이나 미술가의 유적을 찾아보고 미술의 향기를 느껴본다. | 194 - 197p |
| 두산동아 | 생활 모습 표현하기 | 생활화는 실제의 경험을 통해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 생활화 풍속화의 의미를 알아본다. | 66 - 67p |
| | 우리의 생활을 담은 그림 | 민화는 조선시대 서민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꿈과 신화, 종교, 삶을 솔직하게 표현한 장식성이 강한 그림이다. 책가도는 유교적인 문인 선호 사상 때문에 집안의 장식물로 유행하였다. 출세와 가문의 번창을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민화의 특징과 민화가 유행 했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본다. -민화의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민화를 그려본다. 여러 가지 민화를 감상하고 각 소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해 본다. | 91p |
| 일진사 | 미술가와 시대적 특징 | 미술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비 | 미술가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 174 - |

| | | | | |
|--------------|-------------------------|--|--|-------------------------------|
| | | 못하여, 작가의 정신세계, 표현의 의도 및 문화적인 가치관을 파악해야 한다. | 이해한다. | 175p |
| 미진사 | 전통회화의 세계 -풍속화 -민화 |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달하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담은 풍속화가 많이 그려졌다. 민화는 조선후기 생활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한 실용적인 그림으로 작가를 대부분 알 수 없으며 자유롭고 과격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 자신이 좋아하는 전통 회화를 감상하여 시대적 배경, 작품의 내용, 작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써보자. | 152p , 154 - 155p |
| (주) 교학사 | 문화가 숨 쉬는 도시 |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경주,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등 대부분의 도시들은 옛 건물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현대의 문화가 함께 숨 쉬고 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옛것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 22 - 23p |
| | 더불어 사는 삶 |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함께 서로 도우며 생활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 지역축제나 행사에 가족들과 다양한 체험을 해보도록하자. | 미술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한다. | 24 - 25p |
| | 일상 속에서 |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일을 생각해보고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보자. | 일상생활을 주제를 한 그림을 감상하고, 생활 주변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106 - 107p |
| | 풍속화 | 풍속화는 일상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으로 단순한 생활의 기록이 아니라 당시의 풍습과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다. |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풍속화를 비교해보고 그려보자 | 110 - 111p |
| (주) 미래엔컬처 그룹 | 미술로 보는 사회 | 미술은 한 시대의 풍습이나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요즘에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인종 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거나 사회가 염원하는 내용을 미술로 표현하기도 한다. |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 34 - 35p |

<표08>미술교과와 사회교과의 통합

Ⅲ. 조선후기의 시대배경과 풍속화를 주제로 한 통합수업 연구

조선시대 후기 풍속화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달한 시기이고 여행이나 문화가 발달한 시기이기도한 것이 지금 현대 시대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시기이기도하며, 우리 주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비슷해서이다. 물론 조선 시대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림을 풀어 나가는 것이 인터넷등 여러 매체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현대 사회와 닮아서이기도 하다.

1. 조선시대 후기(약1700-약1850년대)의 시대배경

1) 한국사적 관점

① (정치)영,정조 탕평책을 통해 정국을 주도

서인과 남인이 집권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반복되었는데 그 결과 공존의 원리가 무너지고 공론이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고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붕당의 극심한 대립으로 왕권까지 위협 받게 되자, 탕평론이 제기 되었다. 영조는 탕평과를 적극 육성하여 을 유지하여 정쟁을 억제하고 정국을 안정시켰다. 특히 붕당의 뿌리인 서원을 대폭 정리했고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권한도 약화시켰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였으며, 형벌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영조 말기에는 탕평책의 후원세력이었던 외척들의 힘이 강해지는 경향도 있었다.

정조 역시 탕평책을 시행 하였다. 또한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였고 관료들을 재교육시키면서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다. 지방 사족들의 지배력을 억제함으로써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 하였다. 그리고 서얼 출신의 학자를 규장각에 등용하고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② (국제 정세)국제적인 평화 분위기 유지

조선은 양란을 겪었지만, 그 후에는 두 전쟁의 당사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 하면서 경제와 문화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다.

병자호란이후 처음에는 청을 배척하는 분위기였지만, 청의 문물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자,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학론이 대두 되었다.

왜란이후 조선은 에도 막부와 기유약조(1609년)를 맺어 왜관에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 하였다. 그 후 일본은 막부의 실권자인 쇼군이 바뀔 때 마다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조선에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초까지 12차례에 걸쳐 수백 명으로 구성된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들은 외교사절이자 선진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③ (조세 제도)민심 수습을 위한 수취체제의 개편

수취 체제의 개편은 전세, 공납, 군역에서 모두 이루어 졌다. 그 중에서도 농민의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은 대동법의 실시였다.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한 제도로서 민호(民戶)에게 부과한 토산물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포목, 돈으로 징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가 없는 농민은 일단 과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토지가 있는 농민들도 1결당 12두의 대동세만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었다.

농민 장정들은 1년에 2필의 군포만 납부하면 되었지만 군포의 징수가 부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양반도 징수해야 한다는 호포론이 등장했지만 양반의 반대에 실시하지 못하였다. 균역법이 나와 1년에 1필로 줄었지만 인징, 족징³²⁾, 백골징포³³⁾, 황구침정³⁴⁾ 등으로 농민들은 여전히 무거운 군포 부담에 시달렸다.

④ (농업과 상공업)피지배층,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다.

양난 이후 황폐해진 농경지를 확충하기 위한 개간사업을 적극 장려했고, 그 결과 경작 면적이 빠르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양반 지주에 의해 이루어져 농민의 생활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모작과 모내기의 보급, 두레와 품앗이 등의 방법으로 생산력을 증대 시켰다. 이러한 농업의 발전과 민간 수공업의 발전 그리고 광산의 개발로 조선후기 사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⑤ (신분제)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 부농층과 상업자본가, 독립 수공업자 등 부(富)를 지닌 새로운 계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노동자나 영세 상인으로 몰락하였다. 양반층의 분화도 일어났다. 중앙정치 권력을 지닌 양반과 그렇지 못한 양반 중에는 농민과 다를 바 없는 잔반으로 몰락하였다.

⑥ (실학의 등장)실학 부국안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다.

32) 인징, 족징: 도망간 노비의 뭍의 군포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징수 하는 행위

33) 백골징포: 죽은 자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행위

34) 황구침정: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행위

실학은 성리학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민족의 주체적 입장을 강조 하였으며, 실사구시 정신에 따른 과학적, 실증적인 학풍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토지제도의 개혁이나 사공업의 진흥을 적극 주장하고, 양반 중심의 사회 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실학은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이 사회 모순의 해결 능력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근대 지향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학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⑦ (문화)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지다.

서민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지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서당 교육이 크게 확대 되었고 서민들이 문화 예술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홍길동”,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은 현실 부조리를 비판하고 평등의식을 고취하여 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공연 형식으로는 판소리나 탈춤이 유행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였는데, 탈춤은 지배층의 위선을 풍자 하였다. 그림에서는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개척했고 김홍도와 신윤복은 풍속화를 남겼다. 또한 원근법과 명암법으로 서양화법이 도입되었고 김정희는 독창적인 추사체를 창안 하였다. 도자기 분야는 청화백자가 발달하였고, 건축분야에는 사원의 건축과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불국사 대웅전 등이 축조 되었다.³⁵⁾

2) 미술사적 관점

일반적으로 가장 한국적이고 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풍들은 주로 조선 후기(약1700년-1850년)에 그려진 작품들이다. 후기의 회화는 세종대왕 때의 조선 초기 회화와 명확히 비교되는 성과를 보인다. 초기 회화가 송·원대

35) 한국사, 미래엔컬처, 교과서

회화의 영향을 바탕으로 그려졌다면 후기회화는 명 청대 회화를 수용하면서도 보다 뚜렷한 민족적 자아의식을 발현해 표현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발전하게 된 것은 외침의 부재와 탕평책에 의한 정치적 안정 농업과 수공업 발달에 따른 경제적 발전과 시장 경제의 활성화 등, 시대적인 배경과 새로운 회화 기법과 사상의 수용 때문이다.

자아의식을 토대로 크게 대두된 실학적인 경향은 조선 후기 회화 및 문화발전에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큰 변화는 18세기 이후 일어났다. 영조, 정조 시대에 들어서면 중국에서 유행한 남종 문인화를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추어 토착화하려는 화풍이 일어났다. 이른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가 그것이다. 진경문화 유행의 배경에는 조선 중화사상이 큰 몫을 했다. 이제껏 오랑캐라 멸시하던 청나라에 패배하여 왕이 항복까지 한 정치적 치욕을 문화적으로 회복하고, 문화의 중심은 명에서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36)

조선 후기 시대의 회화의 모습의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절파계화풍이 쇠퇴하고 남종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
- 2) 우리나라에 실존하는 산천을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가 정선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다.
- 3) 조선후기의 생활상과 애정을 해학적으로 다룬 풍속화가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등에 의해 풍미하였다.
- 4) 김홍도, 김득신을 중심으로 신선도가 자주 제작되었다.

36) 안휘준, 김원용, <한국미술의 역사>, 2003, pp.482-483

5) 김두량 등의 화가들 비롯한 일부 화가들에 의해 서양화법이 수용되었다.

6) 서민들 사이에 민화가 유행 되었다.

2. 풍속화

풍속화는 근대에 정착한 용어이다. 영문 genre painting 의 번역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속화(俗畵)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미 우리나라의 풍속화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발달한 것은 조선후기 18세기 이후이다. 실학의 영향에 의해 현실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학풍이 형성되면서 서민들의 생활 장면이 해학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³⁷⁾

풍속화는 18세기 초에 윤두서 일가와 조영석등의 문인화가들에 의해 시작되고, 그 이후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에 의해 꽃피었다. 조선 말기에 김준근이 국내외 수요에 의해 풍속화를 그렸다.

정조는 국정을 장악한 노론세력을 견제하고 강건한 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자비대령화원제도로 1783년 규장각 내부에 도화서와 별도로 둔 것이 주목된다. 그곳에서 하는 일은 국왕과 관련된 도화 활동을 전담하면서 자비대령화원은 왕의 측근에서 어느 때 보다 권위와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정조는 이곳에 소속된 화원들에게 3개월 마다 근무일수와 시험 성적에 따라 상을 주었는데, 이때 화원들이 보는 시험 문제를 직접내주고 점수를 매길 정도로 그의 관심이 컸다.

당시 속화로 불려 진 풍속화는 동시대의 서민들의 일상을 다룬 것으로 자비대령화원의 시험과목에 들어있을 만큼 왕실 내에서도 즐겨 감상되었다.

정조는 1789년 6월 113일 속화의 시험 주제로 ‘조선 선박의 점검’,과 ‘논밭의 새참’ 이라는 화제를 주면서 각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되 낱낱 옷을 만한 것을 그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37) 강민기 외 3명, <클릭, 한국미술사>, 예경,2011, p.266

1)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화선(畵仙), 신필(神筆), 국화(國畵)등으로 불린 김홍도는 도석화, 산수화, 화조화, 초상화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김홍도’ 하면 풍속화가 떠오를 만큼 뛰어난 업적을 이룩했다. 38)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람들이 사는 일상의 모습이나 풍속을 그린 그림들이 그려진 것과 같이 풍속화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풍속화가 조선 초기에 풍속화가 그려진 목적은 통치자들에게 백성의 어려운 삶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왕의 처소에 풍속화를 둬으로써 왕이 농사의 소중함과 백성들의 고단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39)

조선후기에 들어서 풍속화가 이자 문인 화가인 윤두서, 조영석이 풍속화를 그렸다. 그런데 이들의 풍속화는 그림 속의 인물들이 현실적이지 않고 산수화속의 주인공들처럼 정적이고 고상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한계를 갖고 있다.

서민들의 일상이 활기차고 생생하게 그려진 것은 김홍도가 활동했던 정조 연간에 들어서이다. 그는 정조가 가장 총애하던 화원으로 정조가 바라는 태평성대 이미지를 그림 속에서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단원 김홍도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의 근대적 과정을 수용하여 풍속화에서 재능을 보인 작가이다. 풍속화가인 김홍도의 작품은 해학의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실생활의 모습에 시각을 돌린 획기적인 소재의 발굴과 양반 사회와 서민 생활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포착한 다양한 소재 그리고 구도에서 화면을 적절히 채운 구도, 묘선의 통일감, 실재감 나는 화면의 내용, 한국적 풍취에 알맞은 색채감 등은 회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홍도의 예리한 관찰력, 재치 있는 소재의 포착, 깔끔한 구성, 솔직하고 해학적인 표현력 등은 작품 속에 몰입하게 한다. 중국 화풍에서 벗어나 한국적

38) 박차지현,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두리미디어, 2009, p.215

39) 박차지현,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두리미디어, 2009, p.215

풍속화풍을 발전시킨 김홍도는 시대성과 사실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해학적인 면을 잘 살린 조선 후기 풍속화가로서 해학적 표현은 우리 민족의 낙천적이고 재치 있는 미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⁴⁰⁾

조선 후기의 풍속화 중 김홍도가 보여주는 작품은 다양하고 해학적이며 건강한 삶의 애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를 담아내는 절묘한 조형기법과 뛰어난 회화미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회사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우리의 역사, 문화, 생활, 사상, 미의식 등을 반영하면서 현대의 우리에게도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도 풍속화는 주제나 소재에 따라 직업적 풍속, 잡사적 풍속, 노상풍속, 여가적 풍속, 춘의적 풍속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⁴¹⁾

김홍도 풍속화 중에서 직업적 풍속에는 기와 잇기, 벼타작, 땅 갈이, 고기잡이, 편자박기, 대장간 등이 있다.

풍속화는 주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감상의 측면뿐 아니라 실제 제작의 측면에서도 이 주제가 조형기법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축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다양하고 풍부한 해학적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담아 낼 수 있는 조형적인 것이 수반되지 못하면 그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⁴²⁾

김홍도가 주로 다룬 소재는 사대부, 양반계층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서민, 천민의 실생활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도저히 그림이 될 수 없는 소재를 예술로 승화시켰으며, 생의 참미 즉,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 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행복한 생활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40)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한국박물관회. 2002, p.304




41) 김봉빈. 풍속화의 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弘益大學校教育大學院, 1995, pp.24-27




42) 한국민족미술연구소, <간송문화 49호>, 1995, pp.74-75

<표09> 김홍도의 풍속화 소재 분석

| 소재 | | 작품명 |
|---------------|-----------|--|
| 일상생활 속 일하는 모습 | | <자리 짜기>, <기와 잇기>, <대장간·행상>, <고기잡이>, <담배 썰기>, <벼타작>, <말짚 박기>, <장터길>, <편자박기>, <논갈이>등 |
| 서민들의 모습 | 서민들의 일상생활 | <서당도>, <주막>, <나룻배>, <목동귀가>, <새참> |
| | 여인들의 일상생활 | <빨래터>, <길쌈>, <우물가>등 |
| | 남자들의 풍속놀이 | <씨름>, <무동>, <활쏘기>, <고누놀이>, <점패>등 |



<표10> 김홍도의 풍속화 작품분석

| 작품 | 제목 | 내용 |
|---|--|--|
|  <p data-bbox="219 799 317 823"><도판01></p> | <p data-bbox="632 629 698 654">서당도</p> | <p data-bbox="777 437 1262 846">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한 학생이 서당 선생님이 훈장에게 좋아리를 맞았는지 눈물을 훔치고 있고, 주위의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킁킁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아마 훈장의 물음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훈장 왼쪽 옆에 앉은 아이가 입에 손을 대고 답을 작은 소리로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안쓰러워하는 훈장의 찡그린 얼굴과 우는 아이의 옆에 놓인 책은 생동감이 느껴질 정도로 사실적이다.</p> |
|  <p data-bbox="219 1246 317 1271"><도판02></p> | <p data-bbox="632 1071 698 1095">씨름도</p> | <p data-bbox="777 942 1262 1220">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씨름도는 씨름하는 두 사람을 화면 가운데에 그려놓고 구경꾼들을 씨름꾼 주위에 원형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주제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탁월한 공간구성력을 보여주고 있다.</p> |
|  <p data-bbox="219 1682 317 1706"><도판03></p> | <p data-bbox="632 1541 698 1565">활쏘기</p> | <p data-bbox="777 1330 1262 1780">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인물의 집중적인 묘사가 이루어진 작품으로, 소품으로 소장하기에 좋은 그림이다. 이 그림의 오른쪽 위, 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통(箭筒)에서 화살을 꺼내어 화살이 똑바른지 한쪽 눈을 감고 살펴보고 있고, 아래쪽에 앉은 사람은 활시위를 당겨보고 있다. 이 그림의 주인공, 활을 들고 화살을 날리려고 하는 사람은 무관이 되는 시험을 보려고 무관에 게서 활 쏘는 법을 배우는데, 어정쩡한 자세와</p> |

| | | |
|---|--------------|--|
| | | <p>난감한 표정을 보니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듯 해 보인다.</p> <p>그리고 활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보아 아마도 왼손잡이인 것으로 보인다.</p> |
|  <p><도판04></p> | <p>자리 짜기</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p> <p>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p> <p>중산층 가정을 그린 그림으로 탕건을 쓴 남편이 정리된 짚단과 기구를 가로로 늘어놓고 바삐 추를 돌려 자리를 짜고 있는 모습이다.</p> <p>그의 얼굴에는 가난에 찌든 삶의 고단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곁에서 아내가 말없이 물레를 돌려 길게 실을 뽑고 있는데 그녀의 표정 또한 밤낮으로 이어지는 노동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듯 한 모습이다.</p> |
|  <p><도판05></p> | <p>신행</p> | <p>조선, 18세기 후반,</p> <p>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p> <p>앞에 두 사람이 청사초롱을 들고 그 뒤에 일행이 따라가는데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바로 뒤에 갈색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일행의 규모로 보아 조출한 혼례인 듯 하다.</p> |
|  <p><도판06></p> | <p>무동도</p> | <p>조선, 18세기 후반,</p> <p>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p> <p>악사들이 원형구도로 둘러 앉아 아기를 연주하고 있고 무동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동의 옷자락 표현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다.</p> |
| <p><도판07></p> | <p>고누놀이</p> | <p>조선, 18세기 후반,</p> <p>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p> <p>청년들이 나무를 하고 지계를 옆에 내려놓고</p> |

| | | |
|---|-------------|---|
|  | | <p>나무그늘 아래서 고누놀이를 하는 모습이다.</p> |
|  <p><도판08></p> | <p>고기잡이</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리 설치한 나무 망에 고기를 몰아넣어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p> |
|  <p><도판09></p> | <p>점괘보기</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길을 지나가는 여인들이 자리를 펴고 점을 봐 주는 점쟁이에게 점괘를 보려고 하는 모습이 다.</p> |
|  <p><도판10></p> | <p>대장간</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대장간의 모습을 원형 구도로 그림 모습입니 다. 뜨거운 쇠를 달구어 망치질을 하며 쇠를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그 시대의 활기찬 생산 을 하는 모습인 듯하다.</p> |
| <p><도판11></p> | <p>빨래터</p> | <p>조선,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여인들만의 장소인 빨래터의 정겨운 모습을</p> |

| | | |
|---|--------------|---|
|  | | <p>표현한 그림입니다.</p> <p>두 명의 아낙이 방망이로 세탁물을 힘차게 두드리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다.</p> <p>시냇가 건너편에는 목욕을 마치고 빗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 어머니와 응석부리듯 앉아 있는 아이를 표현하고 있어 서민적 여인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 준다.</p> <p>그리고 부채를 얼굴로 가린 채 여인들을 훑쳐보고 있는 양반선비를 그리고 있어 풍자와 해학미를 느낄 수 있다.</p> |
|  <p><도판12></p> | <p>담배 썰기</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p> <p>담배를 피기위해 담배를 썰고 있는 모습이다. 옷통을 벗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더운 날씨의 한여름인 것으로 보인다.</p> |
|  <p><도판13></p> | <p>기와 쌓기</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p> <p>기와를 쌓고 있는 모습인데 지붕위에 두 명이 올라가 한사람은 흙을 올리려고 줄을 당기고 있고 한명은 기와를 붙이고 있고 기와 쌓기를 주문한 사람이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p> |
|  <p><도판14></p> | <p>길쌈</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p> <p>여인들이 길쌈하는 모습을 "之"자의 화면구성에 배경 없이 그린 것으로 화면 위쪽에 한 여인이 실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한 여인이 베틀에 앉아 복을 들고 직조를 하고 있으며, 뒤에 시어머니인 듯 한 나이든 여인이 심기가 불편한 모습으로 이를 진지하게 살피고 있다.</p> |
| | <p>벼타작</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p> |

| | | |
|---|------------|---|
|  <p><도판15></p> | | <p>가을에 벼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땅의 주인 같은 갓을 쓴 양반은 뒤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 담배를 피면서 농부들의 수확을 지켜보는 모습이다.</p> |
|  <p><도판16></p> | <p>우물가</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우물가에 아낙들이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이 다. 한 사내가 우물가를 찾아 물을 길어 마시 고 있는 모습이다.</p> |
|  <p><도판17></p> | <p>행상</p> | <p>조선,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8x24cm,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병렬식 사선구도로 두 남녀가 마주한 모습으 로 한 여인이 강보가 아닌 저고리 뒤에 넣어 끈으로 묶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치마를 속바지 가 보이도록 허리까지 올려 묶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머리에 광주리 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상임이 틀림없어 보인다.</p> |

2) 혜원(惠園) 신윤복(申潤福)

조선후기 풍속화를 크게 두 주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남성위주의 풍속놀이를 중심으로 한 ‘단원 김홍도’의 화풍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여성위주의 애정 감정을 표현한 혜원 신윤복(1755-1758)의 화풍이다.⁴³⁾

신윤복의 풍속화에서 해학적인 특징은 전반적으로 등장인물의 묘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남성인물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 서민이 아니라 도회적인 풍모와 복식을 갖춘 양반들이며 여성인물인 경우는 당시 신분제의 제약에서 그나마 자유로웠던 기녀들의 이미지로 보다 여성스러움을 여인묘사를 통해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윤복의 관심분야는 당시 양반들의 천대 속에서도 야무진 절개를 지키면서 오히려 권력과 애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여인들의 운명적인 삶이었다. 그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여인들의 진실한 애정과 천진스런 사랑의 모습을 비추어 당시 유교사회가 가진 도덕성의 불공평과 인권 유린의 성운리를 적나라하고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신윤복의 작품은 주제별로 크게 남녀 간의 정감을 묘사한 작품, 사치스런 양반의 풍류생활을 묘사한 작품, 일반 서민의 생활풍경, 기녀들의 모습이나 생태, 종교생활 풍속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밖에 초상적인 인물화가 있다.⁴⁴⁾

43) 민병삼, <단원 김홍도>, 우석출판사, 2004, p.5

44) 최순우, <한국회화 3>, 도산문화사, 1981, p.70




<표11> 신운복의 풍속화 소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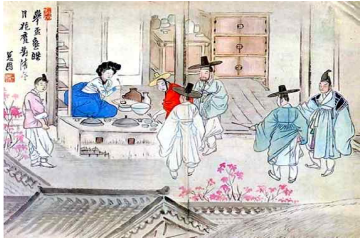


| 주제 | 작품명 |
|---------------|---|
| 남녀 간의 정감 | <월야밀회(月夜密會)>, <춘색만원(春色滿園)>, <기방무사(妓房無事)>, <청루소일(靑樓消日)>, <월하정인(月下情人)> 등 |
| 사치스런 양반의 풍류생활 | <연소답청(年少踏靑)>, <납량만흥(納涼漫興)>, <상춘야흥(賞春夜興)>, <연당야유(蓮塘野遊)>, <주유청강(舟遊淸江)>, <쌍검대무(雙劍對舞)>, <유곽쟁웅(遊廓爭雄)>, <임하투호(林下投壺)> 등 |
| 일반 서민의 생활풍경 | <주막거배(酒幕舉盃)>, <쌍륙삼매(雙六三昧)>, <노중상복(路中相逢)>, <표모봉욕(漂母逢辱)>, <정변야화(井邊夜話)>, <이부담춘(嫠婦耽春)>, <삼추가연(三秋佳緣)>, <애기 엮은 여인>, <저자길>, <문종심사(聞鐘尋寺)> 등 |
| 기녀들의 모습이나 생태 | <거문고 줄 매기>, <단오풍정(端午風情)>, <연당의 여인>, <노상탁발(路上托鉢)>, <휴기답풍(携妓踏楓)>, <처네를 쓴 여인>, <전모를 쓴 여인>, <장옷 입은 여인> 등 |
| 종교생활 | <무녀신무(巫女神舞)> |
| 인물화 | <미인도> |



신운복은 소재의 선정이나 포착, 표현방법, 인물들의 표현방법 설채법 등에서 김홍도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소재 면에서 김홍도가 주로 서민들의 생활상을 파헤친데 주력했던 반면에, 신운복은 서민들의 생활상도 묘사했지만 그 보다는 주로 한량과 기녀들의 로맨스를 열심히 파헤쳤다. 따라서 신운복의 풍속화들은 상당히 세련된 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의 풍속화들은 배경을 통해서 당시의 살림, 복식, 머리, 꾸밈새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계절이나 시기 또는 시간을 잘 나타내 준다.

<표12> 신윤복의 풍속화 작품 분석

| 작품 | 제목 | 내용 |
|---|-------------|---|
|  | <p>단오풍정</p> | <p>지본담채, 28.2 X38.2cm, 간송미술관 신윤복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수릿날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놀던 조선 시대 여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놀이의 이유는 악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액땜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들을 훑쳐보고 있는 소년들은 절간의 젊은 스님들인데, 그 모습이 익살스럽다. <도판18></p> |
|  | <p>쌍검대무</p> | <p>지본채색, 28.3x35.2cm, 간송미술관 세력가의 귀족이 악공들과 가무에 능한 기생을 불러다가 즐기는 장면이다. 한 가운데서 긴 칼을 들고 춤을 추는 무녀를 중심으로 악단과 양반, 기녀들이 둘러 앉아 있다. 주변의 푸른빛들과는 대조적으로 무녀의 치마는 붉은 색이다. 덕분에 시선이 무녀들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역동적으로 필력이는 치맛자락을 보니 얼마나 현란하게 춤을 추는 지 알 수 있다. <도판19></p> |

| | | |
|---|-------------|--|
|  | <p>연소담청</p> | <p>지본채색, 28.2x35.6cm, 간송미술관 기생들이 나귀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신윤복의 풍속화에서는 양반의 놀이 문화와 사치스러운 모습이 당시 시대의 풍류문화가 아름답게 묘사되기도 했지만 양반들의 허례허식의 태도를 비꼬듯이 풍자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p> <p><도판20></p> |
|  | <p>월하밀회</p> | <p>지본채색, 28.2x35.6cm, 간송미술관 달빛만 고요한 한 밤중에 인적 드문 길의 후미진 담장 밑에서 한상의 남녀가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 남자는 차림새로 보아 관청의 무관인 듯 하고, 그 남자의 여인은 기생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만남을 한편에서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여인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준 사람인 듯하다. 담장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듯 한 화가의 시선이 재미있다.</p> <p><도판21></p> |
|  | <p>월하정인</p> | <p>지본담채, 28.3x35.2cm, 간송미술관 어스름한 달빛 아래서 양반인 듯 잘 차려 입은 남자가 초롱불을 들고 길을 재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는 쓰개치마를 둘러쓰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조금은 주저하는 듯 한 모습입니다. 배경은 간략히 묘사되어 있지만 대신 이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미루어 짐작되는 그네들의 감정은 온 화폭이 모자라는 듯 넘쳐흐르고 있다. 왼쪽 담에는 "달은 기울어 밤 깊은 삼경" (The moon is waning, the night is deep, the third watch)</p> |

| | | |
|---|--------------|--|
| | | <p>인데,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이 안다 (月沈沈夜三更 兩人心事兩人知)." 라고 쓰여 있다.</p> |
|  | <p>주사거배</p> | <p><도판22> 지본채색, 28.2x35.6cm, 간송미술관 주막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객들과 주모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그러나 여느 주막과는 다르게 주변의 기와집과 마당 안의 매화도 보이는 것이 양반들을 상대하기에도 손색없는 꽤 반듯한 집 같아 보인다.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들도 선비와 양반들인 듯하다.</p> |
|  | <p>주유청강</p> | <p><도판23> 지본채색, 28.2x35.6cm, 간송미술관 특별히 하는 일없이 유희나 즐기며 세월을 죽이고 있는 선비들을 한량이라고 하는데, 그 한량들이 기녀들을 데리고 뱃놀이를 나왔습니다. 조선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화면 위쪽에는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서 아니 들리는 데 흰 갈매기가 물결 앞에 날아든다” 라고 적혀 있다.</p> |
|  | <p>천금 상련</p> | <p>지본채색, 28.2x35.6cm, 간송미술관 연못가에서 세 남자가 기생을 데리고 유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옛 선비들은 기생들과 즐기는 놀이도 양반들이 지녀야 할 풍류로 생각하였기에, 당당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다. 기녀들의 옷맵시나 선비들의 옷매무새, 가야금, 우아한 정원의 나무들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p> |

| | | |
|---|-------------------|---|
| | | <p><도판25></p> |
|  | <p>연당의 여인</p> | <p>지본채색, 29.6×31.4cm, 국립중앙박물관 신윤복 회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이다. 연꽃이 활짝 핀 연못을 바라보며 여인의 모습을 시원하면서도 운치 있게 그려냈다. 생황을 불려서 한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담뱃대를 든 채 뒷마루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은 은퇴한 기생인 퇴기인 듯 보인다. 순간의 모습을 잘 포착하여 갈끔하게 화면에 담아낸 혜원의 솜씨가 돋보인다.</p> |
|  | <p>무녀신무</p> | <p><도판26> 지본채색, 28.2 x 35.6cm, 간송미술관 일반 집에서 굿을 하고 있는 풍경이다. 갓을 쓰고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무당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빌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혜원은 이렇게 흥미롭고 이색적인 생활의 풍경을 화폭에 담길 즐겨 그렸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녀, 무녀들이다. 여기서도 무녀의 붉은 의상은 우리의 시선을 무녀에게 집중시키고 있다.</p> <p><도판27></p> |



기방무사

지본담채, 28.3x35.4cm, 간송미술관
방안에서 남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당황한 듯한 모습이다. 갑자기 기생이 들어오니 사내는 이불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린 듯하다.

<도판28>

IV. 조선시대 풍속화를 활용한 이해, 표현, 감상 통합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지도계획

1) 단원명 및 단원 설정 취지

단원명: 조선시대 후기 풍속화

단원 설정의 취지: 미술과 수업이 목표에 효율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선시대의 후기의 회화는 실물이나 기록이 많아 수업계획이 잘 구성되면 통합 수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사항을 회화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미적, 역사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에 이 단원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 계획은 조선시대 회화사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후기 풍속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중 중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조선 후기 풍속화와 민화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합수업계획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과서(미래엔컬쳐등 8종)에 제시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미술에서 풍속화로 빼놓을 수 없는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의 작품을 중심으로 시대와 작가의 관계가 유기적임을 이해한다. 회화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시대정신이 깃들여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함을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풍속화가 서구 문물의 확산과 침략으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알고 서양식표현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본 수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어떤 작가들보다도 유머와 해학이 넘치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재치 넘치는 독특한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학습단원의 목표

- ① 풍속화 작품을 통하여 재료와 표현기법, 시대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풍속화의 시대적 특징을 알고 미술에 나타난 시대성, 사회와 자연,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③ 풍속화의 관찰방법, 표현방법에 따른 차이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각할 수 있다.
- ④ 전통미를 재발견하고 현대의 모습으로 생활상을 바꿔 보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3) 지도상의 유의점

미술사와 관련된 수업은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술 작품은 시대의 사상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의 미술사에 대한 철저한 전문지식과 수업에 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일으켜 어렵거나 지루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교수 방법이 요구된다.

작품 감상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미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업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과제를 부여하며, 작품 감상은 풍속화 자체의 외형적 특징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미술사적인 내용과 조형원리를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상 후에는 확인학습과 더불어 미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작품을 제작할 때 풍속화의 개념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해학성이나 풍자성, 현실에 대한 비평적 시각 등 풍속화의 특징들이 작품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① 교과서의 예시 작품의 감상을 돕기 위해 작품을 설명해 준다.
- ② 화파나 화가의 이름보다는 전체적인 미술의 흐름과 역사적인 배경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 ③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도와주며 도움이 되는 말은 되도록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 ④ 몇몇 학습자들이 감상한 소감을 발표해보도록 유도하여 감상 내용을 언어화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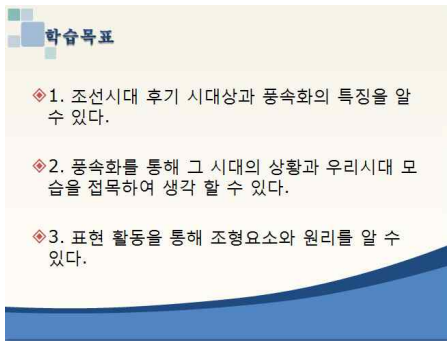
4) 교수-학습 내용

본 수업은 실기수업이지만 단순한 실기능력 배양을 지양하며 표현활동 이전에 감상활동을 선행하여 풍속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1차시에는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역사 중에서 대표적인 회화작품 가운데 풍속화에 대한 이해,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시에는 1차시 수업에서 배운 풍속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해 고찰하여 보고 현재의 풍속에 대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표현주체에 적절한 화면구성과 효과적인 표현 재료의 선정에 유의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차시 마지막에는 1,2차시에 표현하였던 작품과 배운 이론들을 마무리 지은 후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관하여 예시한다.

2. 교수-학습지도안

학습지도안- 이해, 감상, 표현

| 본시 주제 | 조선시대 풍속화 | 단원 | 미술과-조선시대 후기미술 국사-조선시대 후기 경제와 문화 | 소단원 | 풍속화 | 차 시 | 1/2 2/2 |
|------------------|--|----|------------------------------------|----------------------------|-----|----------------------|------------|
| 학 습 목표 | 1. 조선시대 미술과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한다. 2. 조선시대 후기 미술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한다. 3. 미술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고 현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토의해 본다. 4. 조선 후기의 풍속화와 우리시대의 모습을 비교 분석해 보고 접목하여 표현해본다. | | | | | | |
| 준 비 물 | 교사 | | | 학생 | | | |
| | ppt, 쉐트지, 그림자료(풍속화) | | | 붓, 물통, 파렛트, 색연필, 파스텔등 채색도구 | | | |
| 학 습 유 의 사항 | 1. 학습내용에 따라 시각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수업의 앞부분은 강의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2. 풍속화 작품을 집중하여 감상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모듈별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이론 설명이 끝난 뒤에 교사는 순회하면서 개별지도 하도록 한다. | | | | | | |
| 본 시 학 습 효과 | 1. 조선시대 후기 시대상과 풍속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2. 풍속화를 통해 그 시대의 상황과 우리시대 모습을 접목하여 생각 할 수 있다. 3. 표현 활동을 통해 조형요소와 원리를 알 수 있다. | | | | | | |
| 학 습 형태 | 강의식 수업 + 표현 활동 | | | 소요 시간 | 45분 | | |
| 학 습 단계 | 교수 학습활동 | | | | | 자료 및 유 의 사항 | |
| | 교사 | | | 학생 | | | |
| 도입 5분 | ● 인사 및 안내 | | | ● 수업태도 준비 | | | |

| | | |
|---|---------------------------------|--|
| <p>1.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미술 수업을 함께 할 김지영 입니다.</p> | <p>1) 안녕하세요.~</p> | |
| <p>● 수업 위기 환기</p> | | |
| <p>2. 요즘 날씨가 좋죠.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힘들지만 즐거운 미술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p> | <p>2)네~~ 아뇨. 공부가 좋아요…….</p> | |
|  | <p><그림29> ppt01</p> | |
| <p>● 전시 수업 내용 확인</p> | <p>● 전시수업 내용 상기하여 대답하기</p> | |
| <p>3.저번 시간에는 어떤 수업을 했나요?</p> | <p>3)정물화 수업 했어요~~</p> | |
| <p>4.정물화수업에 이론이나 실기 기억하고 있나요?</p> | <p>4)네~~ 알고 있어요~~</p> | |
| <p>● 학습목표 제시, PPT에 제시된 내용 읽기</p> | <p>● 학습목표 따라 읽기</p> | |
| <p>5. 화면에 적힌 학습 목표를 읽어 볼까요?</p> | <p>5)하나, 조선시대 후기 시대상과</p> | |
|  | <p><그림30> ppt02</p> | |
| <p>6. 오늘 수업은 풍속화에 대해서 알고 표현도</p> | <p>6)네~</p> | |

| | | | |
|-----------|---|---------------------------|--|
| | 해볼 겁니다. | | |
| | ● 풍속화에 대해 설명 | ● 설명 듣기 | |
| | 7. 먼저 풍속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7) 네~알고 있어요~ 국사시간에 배웠어요~~ | |
| | <p>풍속화는 세속적이고 평범한 일상생활 정경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p> <p>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p> <p>첫째로, 사회적인 증거로서 당대의 사회상을 면밀히 알게 해주는 기록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p> <p>둘째, 위대한 그림에서 통속적, 일상적인 소재로의 이행을 통해 근대적, 인간적인 가치관 반영을 보여줍니다.</p> <p>셋째, 민중의 삶을 비롯한 일상을 탁월한 예술성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p> | | |
| | ● 역사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 | ● 설명을 듣고 배운 내용 상기하기 | |
| 전개 25분 | 8. 다음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어요. | 8) 네, 알겠어요. 에이~ 지루해요. | |
| | <p>첫째, 정치면에서 조선후기를 보면 서인과 남인이 집권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반복되었는데 그 결과 공존의 원리가 무너지고 공론이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고 특정 봉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봉당의 극심한 대립으로 왕권까지 위협 받게 되자, 탕평론이 제기 되었습니다. 영조는 탕평파를 적극 육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국을 이끌었습니다. 강화된 왕권으로 노론과 소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정쟁을 억제하고 정국을 안정시켰습니다. 특히 봉당의 뿌리인 서원을 대폭 정리했고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권한도 약화시켰습니다.</p> <p>이러한 토대 위에서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였으며, 형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조 말기에는 탕평책의 후원세력이었던 외척들의 힘이 강해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p> <p>정조 역시 탕평책을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였고 관료들을 재교육시키면서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습니다. 지방 사족들의 지배력을 억제함으로써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얼 출신의 학자를 규장각에 등용하고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p> | | |

둘째, 국제 정세를 보면 조선은 양란을 겪었지만, 그 후에는 두 전쟁의 당사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 하면서 경제와 문화적인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병자호란이후 처음에는 청을 배척하는 분위기였지만, 청의 문물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자,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학론이 대두 되었습니다.

왜란이후 조선은 에도 막부와 기유약조(1609년)를 맺어 왜관에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 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은 막부의 실권자인 쇼군이 바뀔 때 마다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조선에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까지 12차례에 걸쳐 수백 명으로 구성된 통신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외교사절이자 선진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셋째, 민심 수습을 위해 경제적으로 조세 개편을 하였습니다.

수취 체제의 개편은 전세, 공납, 군역에서 모두 이루어 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민의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은 대동법의 실시였습니다.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한 제도로서 민호(民戶)에게 부과한 토산물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포목, 돈으로 징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가 없는 농민은 일단 과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토지가 있는 농민들도 1결당 12두의 대동세만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농민 장정들은 1년에 2필의 군포만 납부하면 되었지만 군포의 징수가 부당한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반도 징수해야 한다는 호포론이 등장했지만 양반의 반대에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균역법이 나와 1년에 1필로 줄었지만 인징, 족징,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으로 농민들은 여전히 무거운 군포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넷째, 농업과 상공업에서 이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난 이후 황폐해진 농경지를 확충하기 위한 개간사업을 적극 장려했고, 그 결과 경작 면적이 빠르게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양반 지주에 의해 이루어져 농민의 생활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모작과 모내기의 보급, 두레와 품앗이 등의 방법으로 생산력을 증대 시켰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발전과 민간 수공업의 발전 그리고 광산의 개발로 조선후기 사회가 부를 축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신분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 부농층과 상업자본가, 독립 수공업자 등 부(富)를 지닌 새로운 계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노동자나 영세 상인으로 몰락하였습니다. 양반층의 분화도 일어났습니다. 중앙정치 권력을 지닌 양반과 그렇지 못한 양반 중에는 농민과 다를 바 없는 잔반으로 몰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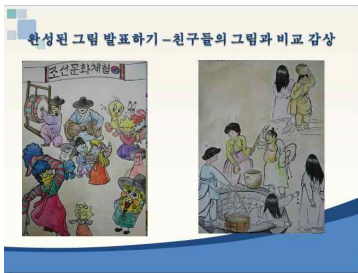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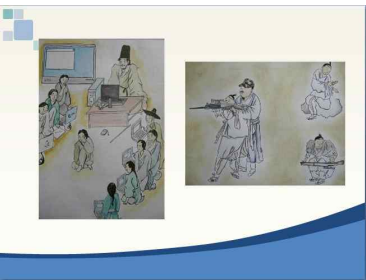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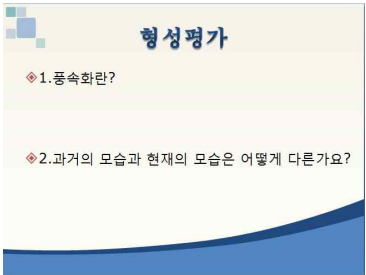
여섯째, 실학 부국안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실학은 성리학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민족의 주체적 입장을 강조 하였으

| | | | |
|-------------------|---|--|--|
| | <p>며, 실사구시 정신에 따른 과학적, 실증적인 학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제도의 개혁이나 사공업의 진흥을 적극 주장하고, 양반 중심의사회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학은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이 사회 모순의 해결 능력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근대 지향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학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일급제, 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졌다.</p> <p>서민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지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서당 교육이 크게 확대 되었고 서민들이 문화 예술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였습니다.</p> <p>“홍길동”,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은 현실 부조리를 비판하고 평등의식을 고취하여 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공연 형식으로는 판소리나 탈춤이 유행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였는데, 탈춤은 지배층의 위선을 풍자 하였습니다. 그림에서는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개척했고 김홍도와 신윤복은 풍속화를 남겼습니다. 또한 원근법과 명암법으로 서양화법이 도입되었고 김정희는 독창적인 추사체를 창안 하였습니다. 도자기 분야는 청화백자가 발달하였고, 건축분야에는 사원의 건축과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불국사 대웅전 등이 축조 되었습니다.</p> | | |
| <p>전개 25분</p> | <p>9. 이제 풍속화 작가들을 알아보까요?</p>  | <p>9) 네~</p> <p><그림31> ppt03</p> | |
| | <p>10.</p> <p>교사: 위의 그림들은 조선시대의 후기 작가 김홍도(1745-1818)의 작품입니다. 김홍도는 서민들의 생활을 독특한 유머와 풍자로 그린 화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서당도와 무동도가 있습니다.</p> <p>교사: 그런데 앞의 화면의 그림을 보면 김홍도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p> <p>학생: 모르겠는데요./ 음 저거 아닌가요?</p> <p>교사: 맞아요. “씨름도”에서는 오른쪽 아래 남자의 왼손과 오른손모양(동그라미 부분)이 바뀌었으며, “무동도”에서는 해금을 연주하는 남자의 손이 실제 연주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p> | | |

| | | |
|---|--|--|
|  | <p><그림32> ppm04</p> | |
| <p>교사: 위의 그림은 고누놀이, 베틀 짜기, 자리 짜기, 서당도, 대장간 활쏘기입니다.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p> | <p>학생: 그 당시에는 심심했겠어요./아니요 재밌을 것 같아요.</p> | |
| <p>11. 신윤복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p> | <p>11) 네에~~</p> | |
| <p>조선후기 풍속화-신윤복</p>  | <p><그림33> ppt05</p> | |
| <p>교사: 신윤복의 풍속화입니다. 왼쪽은 단오풍정 이라는 그림이고 오른쪽은 쌍검대무입니다. 단오풍정은 음력5월5일인 단오를 맞이하여 여인들이 계곡에서 먹을 감고 쉬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의 그림 쌍검대무는 양반집 잔치에 모인 규모로 보아 큰 잔치인 듯 보이고 기녀들의 순간적인 동작을 잘 포착하여 묘사한 것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p> | <p>학생: 네~, 잘 아는 그림 이에요.</p> | |
| <p>12. 김득신의 그림을 보겠습니다.</p> | <p>12) 네 ~</p> | |

| | | |
|--|---------------------------|--|
|  | <p><그림34> ppt06</p> | |
| <p>● 예시작 감상</p> | | |
| <p>13. 김득신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김득신의 해학과 기지가 돋보이는 그림입니다. 어느 한적한 봄날의 한낮 뒤편 툇마루에서 돛 자리를 치던 노부부에게 별안간 벌어진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그 순간의 긴박한 정황을 묘사했습니다.</p> | <p>13) 네~</p> | |
|  | <p><그림35> ppt07</p> | |
| <p>● 다른 사람들의 작품제시</p> | <p>● 다른 사람들의 작품 감상</p> | |
| <p>14. 왼쪽 그림은 씨름도를 변형하여 현대의 락음악 콘서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그림은 같은 씨름도로 비보잉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팀별로 상의하여 한 작품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잘 그리는 것 보다 독창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그려 보도록 합시다.</p> | <p>14) 네~~</p>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로 의논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로 의견 모으기 | |
| 마무리 5분 | <p>15. 자 팀별로 책상에 앉아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p> <p>어떤 그림을 가지고 변형할 것인지, 현대의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지 상의하도록 하세요.</p> | 15) 네~ | |
| 2/2 차시 |  <p>한성된 그림 발표하기 - 친구들의 그림과 비교 감상</p> | <그림36> ppt08 | |
| 도입 전개 27 분 |  | <그림37> ppt09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친구들의 작품 감상 <p>16. 앞의 예시작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하는 사람들의 작품이고, 이번 작품들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이예요. 참고하고 그려 보도록 합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친구들의 작품 보고 참고하기 <p>16) 네에~~ 잘 그린 것 같아요. 저도 그만큼 그릴 수 있어요.</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으로 표현하기 | |
| 5분 |  <p>형성평가</p> <p>◆ 1. 동속화란?</p> <p>◆ 2.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p> | <그림38> ppt1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p>17. 자 노트에 형성평가를 풀어 봅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풀기 <p>17) 네, 답을 적었어요!</p> | |

| | | | |
|-----------|--|--|--|
| 10분 | <p>18. 자 마지막으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어요.</p> <p>창문가 조부터 그림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p> | <p>18) 네. 저희 조는 김홍도의 그림을 변형하여 현재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았습니다.</p> | |
| 마무리 3분 | <p>19. 네~, 잘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공판화수업을 할 거예요. 모두 알려준 준비물을 가져오도록 하세요.</p> | <p>19) 네~ 알겠어요.</p> | |

<표13>수업지도안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회화와 사회과교과의 통합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특징과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표현해 봄으로서 사회, 문화에 대한 해석력을 기르고 조선시대 회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모습을 표현하여 주변과 자신의 삶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미술작품의 표현에 앞서 조선시대 후기 회화에 대한 이해와 시대별 작품 감상을 통해 그 시대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회화를 재해석하였다.

선행학습인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이해 감상지도 및 표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풍속화, 진경산수화 등의 개념과 역사적 사실, 특징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여 학습자들이 단순히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 정도로만 알고 있던 조선후기 회화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이해학습 후 표현활동을 연결시켰을 때 학습자들의 실기 표현 주제가 더 다양해지고 깊이가 있어 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의 회화를 재현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게 발전 시켜 오늘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재해석하여 우리 시대의 일상 생활모습을 작품으로 변형하여 제작해 봄으로서 현대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 관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의 모습도 미술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효율과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개념과 역사, 특징을 지도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 후기 회화는 단순히 작가 개인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역사, 생활, 사상, 미의식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조선 후기 회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사상, 생활상, 사회풍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 현재 시대의 생활상을 조사하는 과정을 갖고 시대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되었다. 학습자들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단 시일 내의 일만 생각하던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방향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셋째, 삶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의 제작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스쳐지나가던 주변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이나 평소 생활모습에 대해 애정을 갖고 관찰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우리 시대의 현재 생활상의 특징이 담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적인 표현 학습이 행하여지도록 하였다. 일방적으로 교사가 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맞춰 표현하는 틀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조사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표현 주제가 다양해 졌으며 창의적이고도 주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술교과와 다른 교과와의 통합 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시를 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의 미술 교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으로 학습자들의 흥미와 생활과 관련된 주제의 선정으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부단히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술이 실기과목으로 표현지도에 치중했던 것에서 이해와 감상을 수반하고 다른 교과와 통합하는 폭 넓은 교육 지도 방안을 개발해야한다. 미술 교육은 미술 전공자를 육성하기 위한 예비교육이 아니라 미술을 삶에서 향유하고 소비 할 수 있는 미술의 소비자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술 교과에서 표현활동 자체를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표현활동에 치중되어 있었던 미술교육의 경향을 바꾸어 표현과 이해, 감상과 통합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며 표현활동을 통해서도 단순한 실기 향상 위주가 아닌 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합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가 정해진 틀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제를 생각하고 표현기법을 선택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질 때 미술교육과 타 교육 간의 통합이 더욱 더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단행본>

- 강민기 외, 『클릭, 한국미술사』, 예경, 2011
김성숙 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김원용·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아트, 2003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2002
박정애, 『포스트모던미술, 미술교육론』, 시공사, 2001
송민영, 『홀리스틱 교육사상』, 학지사, 2006
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아트, 2000
이영만, 『통합교육과정』, 학지사, 2001
정운경, 『발도르프 교육학』, 학지사, 2004
한국미술교육학회, 고숙자 외, 『미술교육이론의 탐색』, 예경, 2004
한국미술교육학회, 김성숙 외,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2003

<국내문헌-교과서>

- 고승혜 외(2010), 『중학교 미술』, (주)두산동아
김용숙 외(2010), 『중학교 미술』, 일진사
김용주 외(2010), 『중학교 미술』, (주)지학사
김정희 외(2010), 『중학교 미술』, 지학사
노영자 외(2010), 『중학교 미술』, (주)교학사
박은덕 외(2010), 『중학교 미술』,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안혜영 외(2010), 『중학교 미술』, (주)미래엔컬처그룹<(구)대한교과서>
이성도 외(2010), 『중학교 미술』, 교학연구사

조중현 외(2010), 『중학교 미술』, 미진사

<국내번역서>

Arthur D. Efland 저, 『미술교육의 역사』, 예경, 1996

Arthur D. Efland 저, 강현석 외, 『인지중심 미술교육론 탐구』, 교육과학사, 2006

Herbert Read 저, 황향숙 외 공역, 『예술을 통한 교육』, 학지사, 2007

Mary Ann Stankiewicz 저, 안혜리 역, 『현대 미술교육의 뿌리』, 미진사, 2011

Ingram 저, 배진수 이영만 옮김, 『교육과정 통합과 평생교육』, 학지사, 1995

Susan M. Drake 저, 박영무, 허영식, 유제순 공역, 『교육과정 통합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9

<학술지>

곽병선, 「지식융합시대와 통합교육과정」

김재복, 「통합교육과정의 연구 과제와 저해 요인」

노용, 「미술과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개발의 예」, 2005, 제19권 2호

손승정, 「문제중심학습 PBL을 기반으로 한 미술과와 타 교과 통합 교육 방안 연구」, 2010, 제 24권 1호

안혜리, 「초등학교양성기관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미술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및 모형 고찰」, 미술교육연구논총, 제20집, 2006년 12월

이미숙, 「통합교육과정 실행의 관련변인 분석」, 1999

이성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2010, 제 24권 2호,

이주은,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구성을 통해 본 미술사 교육의 현황 및 방향」, 2011, 성신여대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제50집

정인수, 「미술과와 사회과의 간학문적 통합요소 분석」, 2007, 제21권 2호,

최영수·강현석, 「듀이의 ‘교과의 진보적 조직’에 비추어 본 통합교육과정의 재개념화」, (2008.8)

<참고논문>

김청아, 통합교과 교육을 위한 미술수업 방안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1
최승미, 중학교 사회과목과 미술과목의 통합교육방안,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정근영, 중등 미술교과와 사회 교과의 간 학문형태의 교수학습의 의미와 설계방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참고 사이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http://www.kice.re.kr/ko/index.do>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ain.do>

인터넷 포털 사이트, <http://www.naver.com>

인터넷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Abstract

: Prof. Kim, Ji-Kyun

A Study on the Integrate Teaching Plan for Middle School Arts and Society
Courses

Ji-young Kim

Majored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dvisor

In this contemporary society, we are demanded to have various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skills, problem-solving ability, creative ideas, or ability to cope with new situations efficiently. Within the flood of visual media we have from moment to moment, we often come to commit errors in understand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only with the partially segmented knowledge. Thus, it is needed to develop integrated educational methods which allow them to perceive things and situations contextually as well as integratedly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also see the cause, process, and result of a problem holistically.

As the reflection of this situati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1994, too, has constantly included integrated questions dealing with two or more subjects. In the College Entrance Essay Test, too, questions to examine their synthetic thinking with integrated subjects beyond the borders of subjects form the mainstream. Also, in college, new liberal arts classes centering around the topics of integrated subjects are being opened more. And

universities of education even chose 'integrated subjects' as essential major courses in 1984.

Although it seems beneficial, integrated education still raise some problems, too because it may prevent students from understanding the unique logicality and conceptual system of a subject or deal with only the outline of it. When the curriculum went through revision in Korea, we had severe objections from subject experts. However, only with the subject-centered educ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develop ability necessary to solve complex problems we get to face in our lives in the present and also the future. From the ultimate perspective, education should draw potentials from the inside of students so that they can solve various problems effectively and raise ability to see problems from diverse viewpoin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integrated education and suggests concrete integrated teaching methods for the art subject and social studies subject based on that in order to gain educational effects from it. Thereupon, this study is aimed at enhancing students' creative and synthetic thinking ability by developing integrated subject programs dealing with the art subject mainly and also the social studies subject.

This study designs the contents of research on integrated teaching methods for the secondary school art subject and social studies subject as below: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and it suggests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studying integrated teaching methods for the art subject and the social studies subject, contents and methods, and the range and limitations of research.

Chapter 2 present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integrated education, the trend of integrated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education. And it suggests the methods of integrated education between the art subject and other subjects.

Chapter 3 considers art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and genre painting in other countries. And it gives arrangement and explanation centering around the artworks contained in each of the secondary school textbooks.

Chapter 4 suggests why the program teaching method for integrated education and the teaching method with total three sessions in it were chosen and genre painting was set as the theme.

Chapter 5 is the conclusion, and it presents the result that can be gained from this research.

This article intended to understand integrated education between the art subject and social studies subject.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e expression and appreciation areas, this study will raise and maintain interest in integrated education between the art subject and other subjects.